인류의 태양 김일성동지

주체 111(2022)년 6월

차 례

머 리 말

인류력사에는 인류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위업에 귀중한 공헌을 한 위인들이 적지 않다. 인류의 리상을 과학으로 정립한 위인도 있었고 지구상에 첫 사회주의국가를 탄생시킨 위인도 있었으며 국제파시즘을 격멸하는 싸움에 거대한 공적을 쌓은 위인도 있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처럼 한생을 다 바쳐 시대와 인류를 위해 당대에 그렇듯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린 위인, 세계인민들로부터 인류의 태양으로 다함없는 칭송과 흠모를 받은 위인은 력사에 일찌기 없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절세의 위인이시며 우리 민족의 어버이이실뿐아니라 온 세계가 공인하는 인류의 태양이십니다.》

한없이 폭넓고 웅심깊은 인정미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여러 나라 당, 국가수반들과 정계, 사회계, 학계의 수많은 저명한 인사들과도 두터운 우의를 맺으시였다. 사상과 정견이 다른 사람들도 누구든지 위대한 수령님을 한번 만나뵈오면 그 고결한 인품에 매혹되여 그이를 끝없이 흠모하고 존경하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은 세상에서 동지와 벗이 제일 많은분이시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진보적인류에게 가장 정확한 진로를 밝혀주시고 민족적독립과 새 사회건설, 사회주의를 위한 인류의 투쟁을 자주의 한길로 줄기차게 인도하시였으며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에게 온갖 사심없는 지원을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시대와 더불어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이 도서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계 여러 나라 당, 국가수반들과 정계, 사회계, 학계의 수많은 저명한 인사들, 진보적인민들과 두터운 우의를 맺으시고 그들을 참된 길로 이끌어주시고 은혜로운 사랑을 베풀어주신 하많은 혁명일화들가운데서 그 일부를 수록하였다.

1. 진보적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밝혀준 세기의 위인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이 자유와 해방의 진정한 길을 탐구하고 모색해온 력사였다.

진보적인류는 20세기에 비로소 인류를 이끌 위대한 사상의 창시자, 자유와 해방의 스승을 맞아하게 되였으니 그분이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였다.

빛나는 예지로 인류가 걸어온 장구한 력사를 꿰들고 머나먼 앞길도 환히 내다보시는 위인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세계의 진보적인류가 나아갈 참다운 길을 처음으로 완전무결하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세계의 주인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한 자주사상이며 인류의 완전한 해방과 세계의 발전을 위한 가장 위력한 무기를 주는 과학적인 혁명사상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 자주의 사상은 세기를 두고 갈망해온 인류에게 안겨진 태양의 빛발이였다. 그이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인간을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인류에게 자유와 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해나갈수 있는 영원한 투쟁의 지침을 안겨주시였다.

주체사상의 터전은 조선혁명의 실천이였다. 하지만 주체사상이 반영하고있는 시대적환경은 세계적판도에서 격렬하게 벌어지는 인류해방투쟁의 격동적인 현실이였고 주체사상의 초석으로 된 자주는 조선인민을 포함한 전세계 피압박인민모두의 요구였다. 주체사상은 비록 조선이라는 크지 않은 나라에서 창시되였지만 벌써 창시가 선언되던 그때부터 인류의 모든 운명을 안고있는 보편적진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의 원리와 원칙을 구현하여 전면적으로 밝히신 모든 사상과 리론들은 인류공동의 지향과 요구가 철저히 반영되고 어느 나라, 어느 력사발전단계에 있는 인민이나 투쟁의 기치로 받아들일수 있는 과학적인 투쟁리념이다. 주체라는 말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말로, 커다란 견인력을 가지고 만사람의 심장을 확고히 틀어잡는 세계공용어로 되였다.

1) 주체의 고귀한 진리를 밝혀주시여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다

주체79(1990)년 11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을 방문한 네팔기자협회 위원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을 주신적이 있다.

그때 네팔기자협회 위원장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이 오늘 세계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세계적으로 공산주의진영과 반공산주의진영에 다같이 커다란 영향을 주고있다고 하면서 이 위대한 사상의 밑바탕에 어떠한 고무적인 요소들이 있으며 이 사상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있다고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이라고,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인간의 운명개척의 옳바른 길을 밝혀준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 어떤 지배와 구속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살려는것은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이라는것, 세계의 주인으로서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려는것은 모든 인민들의 공통된 지향이며 온갖 지배와 예속을 청산하고 인민대중이 진정한 주인으로 되는 자주적인 새 세계를 건설하는것이 바로 현시대의 요구이라는것,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할수 있는 힘은 인민대중자신에게 있다는것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시였다.

사람은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이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느 한 나라의 신문사 기자단을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신들이 주체사상이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해줄것을 요청하였는데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이라고, 다시말하여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이라고 교시하시면서 주체사상이 창시되게 된 경위를 론리적으로 설득력있게 해설해주시였다.

계속하여 우리 당이 주체사상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청소년교육에 큰 관심을 돌리고있다고, 그것은 사회발전에서 사람들을 교육교양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때문이라고 강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이 주체사상의 기초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이며 가장 힘있는 존재도 사람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주체70(1981)년 9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을 방문한 베네수엘라사회주의에로의 운동 제1부위원장을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라고, 모든 나라들은 생겨날 때부터 자주권을 가지고있다고, 자주권이 없는 나라는 참다운 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다고, 나라들사이에 령토가 크고작거나 인구가 많고적은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는 따로 있을수 없다고, 나라들사이에 높고낮은 종속관계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교시하시였다.

모든 나라들이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자주성을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는것,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것, 우리가 주체사상을 가

지고있기때문에 오늘과 같은 훌륭한 나라를 건설할수 있었다는것 등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한마디한마디가 그대로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적인 국가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지침으로 되는 금언이였다.

그중에서도 그들의 뇌리에 뚜렷이 새겨진것은 주체사상은 사람위주의 철학이라고, 주체사상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고찰하며 사람의 운명개척의 방도를 밝혀준다고, 우리에게 주체사상이 있고 전체 인민이 주체의 세계관으로 무장한 여기에 우리의 필승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담화의 마감에 자주의 기치를 들고나아가는 인민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심을 안겨주시면서 그들이 인민들을 자주정신으로 각성시키고 굳게 묶어세워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간다면 승리를 이룩할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고무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날에 하신 담화가 바로 불후의 고전적로작 《자주성을 견지하자》이다.

인민의 힘을 믿어야 한다

주체58(1969)년 6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스리랑카인민조선친선협회대표단을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를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인민의 리익에 맞게 혁명의 길을 선택하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을 하는 과정에 좌우경적과오를 범할수 있는데 좌경과 우경을 안범하자면 인민들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자기 인민들속에 들어가 인민들과 같이 호흡하여야 한다고, 인민들이 자기 나라가 나아갈 길을 더 잘 선정할줄 안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큰 나라에 맹종맹동하지 않고 인민의 리익에 맞게 자주적립장을 견지한다고 해서 민족주의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

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는것이 국제주의에도 충실한것으로 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로부터 1년 남짓한 기간이 흐른 뒤 조선을 방문한 이 나라의 국회대표단이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정부의 수립을 축하해주시였다.

대표단 단장은 조선과 외교관계를 맺은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자기들도 조선처럼 천리마의 정신으로 나라를 발전시키겠다고 말씀드리였다.

그이께서는 그의 말에 지지를 표시하시면서 천리마를 타는 사람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라고, 누구든지 다 탈수 있다고,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인민들을 묶어세우는것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기 민족은 아무것도 모르고 락후하며 다른 나라만이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대주의사상을 가지고서는 나라를 발전시킬수 없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존엄을 지키고 민족의 륭성발전을 이룩하자면 이러한 사대굴종사상과의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인민들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

주체82(1993)년 4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을 방문한 브라질10월8일혁명운동 총비서일행을 만나주시였다.

당시로 말하면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붕괴로 브라질10월8일혁명운동이 고충을 겪으며 좌왕우왕하고있던 시기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운 총비서는 자기들이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겪고있는 난관들에 대해 그이께 사실그대로 말씀드리면서 자기가 우려하는바를 그대로 털어놓았다.

그의 안타까운 심정을 리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의 힘을 믿고 인민들의 힘에 의거하여 그들과 함께 투쟁하면 언제나 승리한다고, 인민들과 등지면 절대로 안된다고, 그들로부터 배우고 그들을 가르쳐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늘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있기때문에 실패를 모른다고 하시면서 고난과 시련이 앞을 막을수록 인민들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인민이라는 바다속에 들어가면 뚫고나가지 못할 시련이란 없다고 명철하게 가르쳐주시였다.

혁명은 누가 선물하지 않는다

주체82(1993)년 2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루과이3월26일운동대표단을 만나주시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을 믿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나라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길을 택한 우루과이3월26일운동의 립장을 적극 지지해주시면서 큰 나라 사람들이나 발전된 나라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자기 인민의 운명을 개척하려 한다면 그것은 헛된짓이라고, 매개 나라 인민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진행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식대로 하는것이라고, 혁명은 누가 선물하지 않으며 혁명의 승리는 자기 힘으로 투쟁하여 쟁취하여야 한다고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한편의 노래가사로 주체의 진리를

주체72(1983)년 6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을 또다시 찾아온 인디아의 저명한 정치학박사이며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서기장이였던 고빈드를 만나주시고 그를 가족과 함께 점심식사에 초청해주시였다.

그날 고빈드는 **김일성**주석을 만나뵈온 인디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게 된다고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아뢰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겸허한 어조로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 유격대원들이 부른 통속적인 노래인 혁명가요 《자유가》의 노래가사를 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사람이 세상에 태여나서 아무런 자유도 없이, 자주성과 창조성도 없이 남에게 매여살면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된다고, 이렇게 되면 결국 사람도 말이나 소와 같은 동물과 다름없이 된다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토끼에게는 차나 에스키모가 필요없다

어느해인가 짐바브웨의 무가베대통령이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 있은 일이다.

그의 방문을 축하하여 차린 만찬회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금수산의사당(당시)이 자기 나라의 베르사이유궁전보다 더 훌륭하다고 평가한 프랑스사회당 당수의 이야기며 우량종토끼를 군대에서 기르도록 조치를 취하신 이야기 등 여러가지 여담을 들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토끼는 풀만 있으면 기를수 있다고, 토끼에게 차나 빵, 에스키모는 필요없다고 교시하시였다.

대통령은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들을 단순한 여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선에서 자체로 건설한 건물이 발전된 유럽나라들의 궁전보다 더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것이나 토끼에게 차나 에스키모가 필요없다고 하신 이야기들은 자주적발전을 지향하는 나라 인민에게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원리들을 깨우쳐준 귀중한 명언들이였던것이다.

2) 당건설과 당활동의 지침을 밝혀주시며

인민대중과 동떨어진 당은 물우에 뜬 기름과 같다

주체64(1975)년 11월 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을 방문한 일본학자일행을 만나주시였다.

조선에서 창조되고있는 새로운 기적과 혁신에 대해 감탄을 금치 못해하는 그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은 처음부터 인민대중의 힘은 무궁무진하며 인민대중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진리를 굳게 믿었다고, 우리 당이 지난 30년동안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바로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투쟁하였기때문이라고, 만일 우리 당이 지난 기간 자기 인민에게 의거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의거했더라면 그러한 성과를 이룩할수 없었을것이며 매우 착잡한 길을 걷지 않을수 없었을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어떤 당이든지 인민대중과 떨어져서는 절대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다고, 상층부만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대중과 동떨어진 당은 물우에 뜬 기름과 같다고. 그러한 당은 자주성을 견지할수 없으며 바람이 부는대로 움직이게 된다고 교시하시였다.

망고가 아니라 복숭아처럼

주체82 (1993) 년 5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건설경험을 따라배우기 위하여 평양에 온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 당대표단을 만나주시였다.

대표단 단장은 위대한 수령님께 요즘 서방에서 자기들에게 다당제를 강요하고있다고 하면서 주석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어떻게 건설하시였는가고, 집권당은 어떻게 건설해야 리상적인가고 물음을 드렸다.

대표단 단장의 물음에 잠시 방안을 둘러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면담탁우에 놓인 복숭아를 손에 드시고 당은 철저하게 복숭아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손에 드신 복숭아를 가리키시며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이룩해야 혁명과 건설을 잘해나갈수 있다고, 이 복숭아에 비유하면 살은 인민대중이고 씨는 당이며 씨속에 있는 알은 수령과 같다고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씨속이 없는 아프리카의 망고에 비유하시며 망고처럼 핵이 없는 단결로 되여서는 안된다고 교시하시였다.

당을 강화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언제인가 조선을 방문한 어느 한 나라의 당대표단 단장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운 자리에서 그이께 당을 강화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올린적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대표단 단장에게 꿀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는가고 물으시였다.

뜻밖의 물으심인지라 단장은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며 꿀벌들은 왕벌을 중심으로 한데 뭉쳐 살아간다고, 물론 그것은 본능에 의한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당을 강화하는 문제를 그에 비유하여 말할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꿀벌들이 왕벌을 중심으로 떼를 짓고 규률있게 사는것처럼 집단안에는 반드시 중심이 있고 규률이 있어야 한다고, 당을 강화하자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수령을 중심으로 전당이 굳게 통일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당대렬확대의 비결

주체70(1981)년 10월 조선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운 끄스따리까사회당 총비서는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새형의 당을 창건하려는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터놓으면서 마음속고충에 대하여서도 무랍없이 아뢰였다.

그의 결심을 들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주 좋은 발기라고 지지해주시면서 혁명투쟁을 하려면 당을 조직해야 하는데 혁명적인 당을 창건하자면 무엇보다도 당의 로선을 잘 받들어나갈수 있는 핵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처음에는 무슨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내오는것이 좋다고,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여기에 망라시킬수 있는데 그들가운데서 핵심을 키우고 그들을 골간으로 당을 조직하면 될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핵심적인 인물이 10명정도 있어도 당을 조직할수 있으며 인차 당대렬을 확대할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자기 나라로 돌아간 그는 인민력량당을 창건하고 이 당의 총비서로 되였다.

당은 창건되였지만 그 강화발전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리하여 그는 주체73(1984)년 11월 조선을 또다시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을 창건하는것도 힘들지만 조직된 당을 확대발전시키는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문제를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거나 늦잡아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이 사업에서 좌경도 우경도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이 사업을 잘하지 못하면 당이 사분오렬되고만다고, 제국주의와 끝까지 싸울수 있는 사람, 인민을 위해 한목숨 바칠줄 아는 사람들로 당대렬을 늘여야 한다고, 당대렬을 튼튼히 꾸린 다음에는 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켜 당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하며 그래야 당이 명실공히 불패의 당으로 될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대중적당건설의 고귀한 지침

주체57(1968)년 10월 하순 에짚트기자단이 조선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뵙게 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조선로동당건설경험을 들려주실것을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에서 승리하려면 핵심을 키워야 하며 바로 그 핵심에 의거하여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우고 발동하여야 한다고, 그러자면 반드시 당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에서의 당건설경험을 들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이 핵심들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몇몇 사람들만 규합해서는 안된다고, 우리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핵심적인 골간만을 가지고서는 당을 건설할수 없었다고, 그 리유는 우리 나라가 일본제국주의식민지로 오래동안 있었으므로 공산주의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적었고 로동계급은 수적으로 많지 못하였기때문이라고,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는 민주주의혁명을 지지하고 혁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가운데서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당에 망라시켰다고, 그리고 그에 맞게 낮은 투쟁강령을 제기하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에 받아들이려는 선진분자들의 선발원칙에 대하여서도 설명해주시였다. 또한 인테리들을 당에 받아들이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민주주의혁명을 적극 지지하고 조선을 민주주의적인 나라로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나서는 인테리들가운데서 적극분자들을 골라 당에 받아들였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때까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적느라 여념이 없던 론평원이 그이께 지식인들이 민주주의혁명에 적극 참가하기만 하면 다 당에 받아들이시였는가고 문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테리들을 당에 받아들이는 문제는 당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시면서 식민지인테리들은 발전된 자본주의나라 인테리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를 가지고있다고, 그들은 비록 부유한 가

정에서 나서자라 공부를 하였지만 민족적인 멸시와 압박을 받았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부유한 가정출신의 지식인이 공화국에 들어와 비날론과학을 성공시킴으로써 로동당에도 들고 우리의 사상에도 스스로 공감한 사실을 감명깊게 들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끝으로 우리 당은 지난날 인테리문제를 옳게 해결하였기때문에 권위있는 대중적인 정당으로, 조선인민의 지도적이며 향도적인 력량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양성경험

주체61(1972)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을 방문한 탄자니아련합공화국 당학교대표단을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의 당일군양성경험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고 당학교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문제들에 대해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당건설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당일군들을 빨리 양성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해방한 다음 인차 중앙당학교를 세우고 당일군들을 키우기 시작하였다고, 중앙당학교에서 당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부터 가르쳐주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당을 창건할 때 많은 사람들을 당에 받아들였는데 그때에는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한 사람들과 지하투쟁을 한 사람들이나 당사업에 대하여 좀 알고있었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였다고, 그러므로 당의 투쟁목적과 조직형태, 당사업방법과 같은 문제들을 잘 가르쳐주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고 이야기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탄자니아의 당학교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알아보시고 조선에서 당일군들을 양성하는것과 함께 당학교교원들도 양성한데 대하여서와 당학교운영체계를 세울수 있는 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일군들을 키우는 중요한 목적은 사상을 가르쳐 주는것이며 자기 당의 사상, 자기 수령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쇠도 밖에 그냥 내버려두면 녹이 쓸어 못쓰게 된다고, 쇠가 녹쓸지 않도록 하려면 기름칠도 하고 뼁끼칠도 하며 늘 닦달을 하여야 한다고,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머리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고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가 계속되는 조건에서 사상단련을 일상적으로 하지 않으면 변질될수 있다고 하시면서 당을 강화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면 전당, 전군, 전민이 학습하는 제도를 세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다당제의 반동성

1990년대초엽의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을 방문한 어느 한 아프리카나라의 지도자를 만나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일당제원칙을 고수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이 다당제를 받아들이도록 설교하는 목적은 진보적으로 나아가고있는 나라들을 복잡하게 만들고 그 나라들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지배와 예속을 계속하려는데 있다고, 동유럽나라들이 녹아난것도 다당제를 받아들인 후과라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프리카나라들에는 종족들이 많기때문에 한 나라에서 다당제를 받아들이면 그 나라안에서도 여러 종족이 저마다 자기의 당을 만들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종족들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다당제에 머리를 기웃거리는것조차 금물이라고, 다당제를 받아들인것으로 하여 쓴맛을 본 나라 사람들은 모두 돌아설것이라고, 그러나 다당제를 받아들인 나라들이 쓴맛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는 벌써 늦는다고, 그때는 바로 그 나라가 제국주의자들의 손아귀에 들어간 때이라고 교시하시였다.

3) 정치적자주성을 견지하도록

자주를 사회주의건설의 생명선으로 틀어쥐시고

주체44(1955)년 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어느 한 나라를 방문하시였을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나라 지도자들과의 담화에서 조선에서의 전후복구건설성과에 대하여 알려주시면서 조선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려고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자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표하시려는 테제와 관련하여 자기들과 의견을 나누었으면 하는 의향을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 그 나라 당에서 《리론가》로 내세우는 몇몇 인물들과 마주앉게 되시였다.

그들은 발전된 사회주의나라들에서도 아직 협동화를 다하지 못하고있는데 모든것이 재더미로 된 조선에서 어떻게 협동화를 먼저 하겠는가고 하면서 조선에서 사회주의혁명단계의 과업을 수행하려는데 대하여 반대해나섰다. 그러면서 그들은 유럽나라들에서는 테제가 없이도 사회주의혁명을 잘해나가고있는데 조선에서 테제가 필요한가고 시비해나섰다.

그들의 본심은 테제라고 하면 사회주의혁명을 먼저 한 큰 나라 당에서나 내놓을수 있는것이지 조선처럼 사회주의혁명을 갓 시작한 나라 당에서는 내놓을수 없다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행리론과 기성경험만을 내세우는 그들의 그릇된 주장을 하나하나 론박하시면서 조선인민의 요구와 조선의 구체적현실에 기초하고있는 조선로동당정책의 정당성을 론리정연하게 해설해주시였다.

그후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테제를 내놓는데 대하여 시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결심을 굽힐수 없다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집대성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이처럼 견결한 자주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에서의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테제를 완성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4(1955)년 4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였다.

통속적으로 깨우쳐주신 자주성견지의 중요성

주체69 (1980) 년 9월 1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을 방문한 전 프랑스국회 명예의원인 프랑스조선친선협회 대표위원장을 만나주시였다.

그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자주성에 대한 인식을 깊이하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일본자유민주당 아시아아프리카문제연구회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오찬회를 하실 때 있은 일을 이야기하시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찬회도중 담배를 피우신적이 있었다. 대표단의 한 성원이 주석께서는 어느 나라에서 생산한 담배를 피우시는가고 문의의 말씀을 올렸다.

그이께서는 이 담배는 조선의 유명한 성천담배라고 하시였다.

그러자 그는 주석께서는 만일 조선에서 생산하는 담배가 없다면 중국의 담배를 피우시겠는가, 아니면 쏘련의 담배를 피우시겠는가 라고 또다시 물음의 말씀을 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중국의 담배도 피우지 않을것이며 쏘련의 담배도 피우지 않을것이라고, 조선담배를 피우겠다고, 조선에 담배가 없을리가 있는가고, 다른 나라에서 담배를 다 심는데 우리라고 왜 못 심겠는가고, 조선에 담배가 정 없으면 담배를 피우지 않을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때 일을 회고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표위원장에게 매개 나라가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매개 나라가 자주성의 기치를 확

고히 들고나가면 미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 지배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 힘있게 벌릴수 있다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자주성을 철저히 견지하도록

1970년대에 어느 한 나라의 대표단이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시였다.

대표단단장은 자기 나라의 정세를 통보해드리고나서 자기들은 자주를 지향하고있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립장을 지지해주시면서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영예이라고, 민족이 자주성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자주성이 없는 진정한 독립과 평화란 있을수 없다고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시여 민족적독립을 이룩한 나라들가운데서 지금 일부 나라들은 민족적독립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제국주의자들의 예속밑에 들어가고있다고, 그러나 자주성을 지키고있으며 훌륭한 지도자의 령도를 받고있는 나라들은 민족적독립을 지키고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신들이 자주성을 옹호하는것은 아주 용감하고 정당하며 세계인민들의 칭찬을 받을 일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대표단단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들의 립장을 지지해주시는데 대하여 더없이 고맙게 생각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그이께서는 당신들이 자주적인 립장에서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도 자주적인 립장에서 당신들의 용감한 결심을 받아들였기때문에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은 자주의 한길에서 손잡고나갈수 있을것이라고, 만일 우리가 자주적인 사상에 기초하여 단결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우리는 아직도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보다 경제력에서는 못하다고, 그러나 우리가 자주적인 정신이 강하면 발전된 나라로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진정한 정치적자립을 가지자면 경제적자립을 이룩해놓아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놓았다고 교시하시였다.

당과 국가활동에서 자주성을 견지해야 한다

주체70(1981)년 9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을 방문한 베네수엘라의 저명한 정치활동가를 만나주시고 그와 허심탄회하게 담화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관심하는 자주성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당과 국가활동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이 현시대의 요구에 맞는 가장 정당한 정책이라고,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주성의 본질과 그의 민족적 및 국제적성격,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 자주권을 행사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요구와 방도에 대하여 가르쳐주기도 하시고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면 제국주의자들이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맥을 추지 못할것이며 자주의 길을 선택한 인민들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라는 진리와 신심을 안겨주기도 하시였다.

유모아로 새겨주신 교훈

주체68(1979)년 6월 2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을 방문한 캄보쟈의 노로돔 시하누크국왕에게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자주성을 견지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운전대없는 자동차》에 대한 유모아를 들려주시였다.

어느 한 큰 나라의 공산당총비서가 유럽의 작은 나라 공산당총비서에게 선물로 자동차를 주었는데 거기에는 운전대가 없이 자동차앞에 갈구리만 있었다. 큰 나라의 총비서는 자동차앞에 갈구리밖에 없다는 작은 나라 공산당총비서의 말에 그러면 됐다, 그 갈구리에 바줄을 매서 앞차에 련결시키고 당신은 편안히 앉아있으라, 내가 앞차를 몰고가겠으니 당신은 그저 끌려오면 된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운전대없는 자동차》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시는듯 노로돔 시하누크를 바라보시였다. 이때 시하누크는 유모아가 정치인들에게 심각한 교훈을 준다고 하면서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정치인들이 든든히 틀어잡아야 할 운전대는 자주성이라는것을 잘 알았다고 말씀드리였다.

구미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주체74(1985)년 7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북유럽의 어느 한 나라 공산당대표단을 만나주시고 담화를 나누신적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성을 견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의 립장을 긍정해주시면서 매개 나라 혁명은 그 나라 당이 책임지고 수행하는것만큼 다른 나라 당들의 경험이 아무리 좋은것이라고 해도 자기에게 좋으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비유해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맛있는 과자를 먹으라고 권해도 그것이 자기 구미에 맞지 않으면 먹지 말아야 하는것과 같다고, 자기 구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소화불량증이 생겨 병에 걸릴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시여 당과 국가들사이에도 좋은 경험은 서로 배워주어야 하지만 다른 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경험은 억지로 먹이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 두 당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동지적으로 굳게 단결되여있기때문에 함께 투쟁하여나갈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해야 할 필요성과 원칙을 하나하나 알기 쉽게 깨우쳐주시는 참으로 통속적인 가르치심이였다.

높고낮은 당이 따로 없다

주체64 (1975) 년 6월 어느날이였다.

당시 유고슬라비아를 공식친선방문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상봉한 이 나라 지도자는 그이께 조선은 누구의 눈치도 보는것이 없이 제

할 말을 다하며 배심있게 나아가고있다고 말하며 무척 부러워하였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패권주의를 반대하여 자치제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지만 이러저러한 압력과 시비로 골머리를 앓고있다고 마음속고충을 숨김없이 터놓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매개 나라 당은 자기 당의 사상, 자기 당 정책으로 당원들을 무장시켜야 하며 다른 당의 정책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안된다고,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며 당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는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시여 세계에는 높고낮은 당이 따로 없으며 아버지당과 아들당도 있을수 없다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은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하여야 한다

주체61(1972)년이 저물어가던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을 방문한 기네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네가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자기의 정권을 지켜나가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새로 독립한 나라들이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자주성을 지키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나라마다 혁명운동이 벌어지는 구체적조건이 다르고 나서고있는 혁명과업도 같지 않다고, 아시아, 아프리카나라들가운데는 자본주의발전단계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못한 나라들이 많은데 이 나라들의 실정이 자본주의발전단계를 정상적으로 거친 나라들의 실정과 같을수 없다고, 이것은 매개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하여야 하며 어느 한 나라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본따서는 안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시대는 매개 나라 혁명가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신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시여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방법을 보아도 나라마다 다르다고, 음식을 어떤 나라 사람들은 숟가락으로 먹고 어떤 나라 사람들은 포크나 저가락으로 먹으며 어떤 나라 사람들은 손으로 집어먹는다고, 그러니 어느 나라 사람이나 다 포크를 가지고 음식을 먹으라고야 할수 없지 않는가고, 이와 마찬가지로 매개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도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설명해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는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 혁명의 리익과 구체적실정에 맞게 해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뻬루인민은 뻬루식혁명을 하여야 한다

주체63(1974)년 6월 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을 방문한 뻬루의 어느한 신문 주필부부를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성의 원칙에 대하여 통속적으로 설명해주시면서 한가정안에서도 누구든지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싶으면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시고싶으면 차를 마시고 마음대로 할수 있게 되여야지 그렇게 하지 못하게 구속하면 가정이 화목할수 없다고, 우리는 다른 나라의 내정에 절대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반혁명의 길로 나가지 않는 한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을 욕하지도 않는다고, 다른 사회주의나라들도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있으며 설사 간섭하려고 하여도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자주성을 견지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다면 나라는 정치사상적으로뿐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더욱 강대해진다고 하시면서 조선의 실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신들이 뻬루청년들속에 사대주의사상이 적지 않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혁명과 건설을 하는데서 사대주의를 철저히 반대한다고, 우리는 사대주의를 반대한다는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지난 기간 우리는 혁명과 건설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조선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내놓고 말하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필에게 뻬루에서는 모든 일을 뻬루식으로 하여야지 다른 나라 식으로 해서는 안될것이라고, 뻬루인민이 지금 뻬루식 혁명을 하고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좋은가고, 뻬루인민이 뻬루식혁명의 길을 택한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하시였다.

스웨리예는 스웨리예식으로 혁명과 건설을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81(1992)년 6월 조선을 방문한 스웨리예공산주의자로동당 위원장을 만나주시였다.

위원장은 위대한 수령님께 세계적범위에서 사회주의운동을 재건하기 위한 실제적방도문제에 대하여 가르치심을 주실것을 요청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사회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에 비추어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매개 나라 당들은 오늘의 시대적요구에 맞게 자주성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길로 확신성있게 나아가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당이 걸어온 근 50년의 력사는 당활동에서 자주성을 견지할 때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하시면서 매개 나라의 실정은 서로 다르다고, 그렇기때문에 매개 나라의 실정에 다 맞는 처방이란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고, 우리는 모든 나라 당들이 다 자주적립장에서 자기식으로 혁명과 건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조선은 조선식으로 혁명과 건설을 하여야 하고 스웨리예는 스웨리예식으로 혁명과 건설을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어느 편인가

1960년대중엽 사회주의운동안에서는 남을 함부로 의심하고 이편저편으로 갈라놓으려는 현대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이 우심해지고있었다.

그들은 혁명적원칙을 지키는 당들에 대하여 《민족주의》, 《모험주의》의 감투를 씌우는가 하면 철저한 반수정주의적립장에서 부당한 요구들을 단호히 거절하는 조선당에 대하여서도 누구의 편인가고 걸고들었다.

그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는 어느 편에도 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시며 만일 우리에게 어느 편인가고 묻는다면 우리는 혁명의 편이라고 대답할것이라는 조선로동당의 원칙적립장을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후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 한 나라 당대표단과 담화하시는 자리에서 우리 당은 남의 걸상에 불편하게 앉는것을 바라지 않았으며 자기의 옳바른 걸상에 편안히 앉아있었다고, 우리 당은 지금도 자기의 걸상에 확고히 앉아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자기의 걸상에 앉아있을것이며 절대로 남의 걸상에 끼워앉지 않을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선언하시였다.

모든것을 우리 식대로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79(1990)년 5월 네번째로 조선을 방문한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개 나라는 다 자기 식대로 혁명을 하여야 과오를 범하지 않을수 있으며 또 과오를 범한다고 해도 제때에 고칠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전에 쏘련지도자가 우리에게 쎄브에 들라고 여러번 권고하였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 식대로 살겠다는 대답을 주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모든것을 자기 식대로 하는것이 제일 좋다고, 우리는 지난날 모든것을 우리 식대로 하였기때문에 과오를 범하지 않았다고, 지금 미국사람들까지 너절하게 우리 나라에서도 《개편》을 하라고 하면서 추파를 던지고있지만 우리는 개편할것이 없으므로 언제나 우리 식대로만 살아갈 결심이라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강조하시였다.

4)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도록

경제적으로 남에게 예속되면 정치적으로도 예속되기마련이다

주체70(1981)년 6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을 방문한 메히꼬의 어느한 신문 편집리사회 위원장을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메히꼬가 자주성을 견지하고있는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메히꼬에서 실시하고있는 자주적인 정책은 메히꼬로 하여금 진보적인 나라로 발전할수 있게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여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자주성을 견지하는데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지 못하면 나라의 독립과 정치적 자주성을 고수할수 없다고, 경제적으로 남에게 예속되면 정치적으로도 예속되기마련이라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뽈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사이의 경제적협조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금 발전된 나라들은 얼마 되지 않고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은 100여개나 되는 조건에서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좋은 기술을 한가지씩만 내놓는다고 하여도 100여가지의 기술을 서로 교류할수 있을것이라고, 그러므로 이 나라들이 경제문화교류와 기술적협조를 잘하면 발전할수 있으며 발전된 나라들을 따라잡을수 있다고 하시였다.

다른 나라들의 경험과 기술을 배우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은 자주성을 지키는것이라고, 다른 나라의것이 좋다고 하여 무턱대고 받아들일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잘 따져보고 맞으면 받아들이고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그야말로 발전도상나라들이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고귀한 지침이였다.

정치적자주성을 지키려면 경제력을 강화해야 한다

어느해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을 방문한 부르끼나파쏘정부친선대표단을 만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표단을 만나시여 이 나라의 형편을 료해하시고 정치적자주성을 지키려면 경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 인민들의 머리속에는 자연히 발전된 나라들에 대한 사대주의사상이 생기게 된다고, 큰 나라들을 숭배하고 큰 나라들에 의존하게 되면 자기의것은 다 나쁘고 남의것은 다 좋게 보이게 되며 나아가서는 큰 나라들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에서 첫 양수장을 건설하던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때만 해도 자체의 힘으로 양수기를 만들지 못하였으므로 어느한 나라에 양수기를 만들어보내달라고 네번씩이나 편지를 띄웠는데 겨우 몇대밖에 보내주지 않았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온 나라의 관개공사를 할수 없었기때문에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양수기를 만들기로 결심하였다고, 처음에는 일이 잘되지 않아 고충을 겪었으나 마음먹고 달라붙으니 얼마 안있어 대형양수기를 만들어냈다고, 그렇게 만들기 시작한 양수기를 가지고 우리는 온 나라의 수리화를 자체의 힘으로 해냈다고 교시하시였다.

대표단단장은 감동을 금치 못하며 위대한 수령님께 지금까지 귀국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보면서 그 모든 성공의 비결이 다름아닌 자주성에 있다는것을 똑똑히 알게 되였다고 말씀올리였다.

자립경제건설의 길을 밝혀주시여

주체52(1963)년 9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을 방문한 말리공화국 정부대표단을 만나주시였을 때였다.

대표단단장은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 나라 대통령이 올리는 인사를 전해드리고 자기들이 경제건설에서 겪고있는 고충과 다른 나라에서 경제원조를 받고있는것도 숨기지 않고 말씀드렸다.

그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은 결코 헐한 일이 아니며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 나라에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다고, 귀국에서도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달라붙었으면 벌써 절반일은 해놓은것이나 다름없으며 그것은 성과를 담보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신심을 안겨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시여 형제나라들에서 주는 원조도 귀중하다고, 그러나 다른 나라의 원조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고, 경제건설에서도 가장 중요한것은 자기 나라 밑천을 옳게 조직동원하는것이라고, 다른 나라들에서 주는 원조는 자기 나라 밑천의 몇백몇천분의 1도 안된다고 하시면서 민족경제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주체53(1964)년 10월 말리대통령이 조선을 방문하시였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와 뜻깊은 상봉을 하시고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대통령은 자기 나라의 경제형편을 통보해드리면서 경제적인 기초와 자금이 없어 민족경제를 일떠세우는데서 곤난을 겪고있다고 말씀드리였다.

그의 말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말리에 수공업자들이 많은가고 물어보시고 대통령에게 참고가 되게 하시려고 전후 수공업조차 변변한것이 없었던 조선에서 지방산업공장을 발전시키던 때의 일들을 감명깊게 들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의 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당신들도 수공업을 홀시하여서는 안된다고, 어느 나라든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큰 규모의 중앙공업과 자그마한 규모의 지방산업을 배합하여 발전시켜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지방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주체60(1971)년 5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 지방장관대표단을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프리카인민들이 지난날 식민주의자들의 가혹한 착취로 인하여 어렵게 살았지만 자체의 힘을 믿고 풍부한 지하자원과 무연한 벌판을 잘 리용하여 민족경제를 건설해나간다면 얼마든지 잘살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에는 중앙공업과 지방공업이 있는데 참고로 삼자면 지방공업을 봐야 할것이라고, 지방산업공장들이 크지는 않지만 이 공장들은 우리 나라가 자력갱생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나라가 자력갱생을 하자면 소비품같은것은 할수 있는껏 지방에서 자체로 해결해야 한다고 차근차근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해방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외국물품을 사들이지 말고 손으로라도 무명을 짜자는 구호밑에 수공업부터 발전시키면서 민족경제를 건설해온 경험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표단성원들에게 대규모공장들만 쳐다보지 말고 수공업부터 발전시켜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신들이 찬성하겠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갈 때 특별비행기를 보장해주겠으니 며칠간 더 머물러있으면서 지방산업공장들을 돌아보는것이 어떻겠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대표단단장은 고마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주체82(1993)년 10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을 방문한 기네 **김일성**농업과학연구소 소장일행을 만나주시였다.

그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식량문제를 해결하는것은 곧 자주독립을 의미한다고 교시하시면서 해마다 식량을 얼마나 사오는가고 물으시였다.

40만 t 을 사온다는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량을 외화로 계산해보시고나서 식량을 자체로 해결하면 그만한 돈을 거저 얻는것이나 다름없다고 교시하시면서 부침땅면적과 인구수를 알아보시였다. 그러시고는 50만정보의 부침땅에 관개면적을 늘이고 2모작을 하여 1정보에서 10 t 의 알곡을 생산하면 500만 t 의 식량이 나온다고 하시면서 그것이면 귀국은 부자의 나라로 될수 있다고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이읃고 입는 문제에로 화제를 돌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 1m를 짜는데 목화가 200g 든다고 하시면서 정보당 목화를 600㎏ 생산하는것으로 보고 5만정보에서 2모작을 하면 6만 t 을 생산할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일군들에게 그 목화로 천을 얼마나 짤수 있는지 계산해보라고 이르시였다.

잠시후 일군들이 올리는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 틀렸다고 머리를 저으시면서 6만 t 의 목화면 3억m의 천을 짤수 있다고, 그것이면 입는 문제를 모두 풀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경제건설경험

주체46(1957)년 7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을 방문한 웰남의 호지명주석을 만나시여 담화를 나누시였다.

호지명주석은 조선의 경제건설방향에 대하여 말씀해주실것을 요청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의 경제건설형편과 전후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에 대하여, 기계공업을 핵심으로 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은데 대하여 이야기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계공업기지를 창설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조선의 실례를 들어 설명해주시였다.

전후 조선에서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 가서 고기배를 팔아달라고 한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28척의 고

기배밖에 주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부탁했더니 크게 마음을 쓴다는것이 겨우 70척의 고기배를 주겠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곤난이 있기는 하지만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전후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내놓았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하던 과정에 대하여서도 문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나라 농촌에는 로력이 모자랐다고, 그래서 농민들이 자체로 품앗이형태로 농사일을 하였다고, 우리 당은 이것을 제때에 포착하고 처음에는 품앗이반을 무어주었다고, 협동조합이 아니라 품앗이반을 무어서 한동안 농사를 짓다가 전후에 우리 당 제6차 전원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할데 대하여 결정하고 농민들에게 호소하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전후 로력 특히 남자로력이 매우 부족한 조건에서 농업협동화의 유리점을 찾아보고 농민들이 자진해서 협동조합을 무은데 대하여, 농촌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실현하기 위해 농민들의 리해관계를 충분히 참작한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또한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하는 방법도 농민들이 리해가 되게 먼저 시험적으로 매개 군에 몇개씩 꾸리고 그 우월성을 실물로 보여준 다음 대중적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업협동조합의 형태와 규모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처음에는 수확고에 따라 25~27%를 현물로 국가에 바치도록 하였다가 농민들의 열성이 높아지지 않기때문에 농업현물세를 고정시킨데 대하여, 더 생산한 알곡은 농민들이 자체처분하도록 한데 대하여 이야기해주시였다.

화학비료시비방법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다가스까르의 대통령(당시)을 만나주시였을 때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 다른 나라에서 비료공장을 들여올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화학비료를 잘못 쳐 농사를 망친 다음부터 화학비료라면 질색하는것이 문제라고 자기의 고충에 대해 말씀드리였다.

그의 말을 통하여 화학비료를 농작물의 특성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치지 못하였다는것을 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에서의 화학비료시비방법에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해주시였다.

대통령은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들이 들여오려는 질소비료공장의 생산능력이 10만 t 이라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마 그 공장은 뇨소비료공장일것이라고 하시면서 뇨소비료 10만 t 이면 성분량으로 4만 t 이상 될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국제적으로 화학비료를 성분량으로 계산하고있다고 알려주시면서 그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였다.

그가 10만 t 의 비료를 60만정보의 논에 치려 한다고 말씀드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앞으로 귀국에서 생산하게 될 10만 t 의 비료가 순수 암모니아비료라면 성분량으로 7만 t 쯤 되는데 그것으로는 20만정보의 부침땅에나 칠수 있을것이라고 알려주시였다.

5)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혀주시며

조선의 사회주의는 왜 굳건한가

주체80(1991)년 5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에꽈도르좌익민주당대표단을 몸소 만나주시고 담화를 나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담화에서 조선이 어떻게 되여 그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회주의를 고수하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언제나 우리 인민의 힘을 믿는다고, 인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인민들의 힘에 의거하면 안되는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가 두차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전후 재더미우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여온 력사적과정에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해주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일제가 항일유격대와 인민들을 갈라놓기 위하여 별의별 책동을 다하였지만 자신과 항일유격대에 대한 인민들의 지지를 가로막을수 없었다고,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은 당과 조국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영웅적으로 싸웠다고 하시며 전후복구건설시기에도 우리 인민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면서 복구건설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신데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망한것은 그 나라 지도자들이 자기 인민의 힘을 믿지 않고 인민들을 잘 령도하지 못한 후과이라고, 동유럽사회주의나라의 집권자들은 자기 인민보다 큰 나라를 더 믿고있었다고, 결국 큰 나라가 망하니 그 나라들도 다 망하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동유럽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붕괴원인에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명철한 《진단》

주체78 (1989) 년 11월 전 국제그리스도교민주당 위원장이며 이딸리아 국회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조선을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고령의 몸으로 먼길을 찾아온 그를 따뜻이 맞아주시고 그와 오랜 시간에 걸쳐 진지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동유럽나라들이 진통을 겪게 된것은 자주성이 없었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이미 25년전, 30년전에 쎄브에 든 나라들의 운명을 예측하였기때문에 우리 나라는 쎄브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큰 나라들을 따라다니면 마지막에는 그렇게 되는 법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벌써 수십년전에 쎄브에 망라된 나라들의 장래운명에 대해 《진단》하시였던것이다.

독약과 보약에 대한 이야기

주체78(1989)년 12월 2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을 방문한 어느한 나라 일행에게 독약과 보약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사회주의건설의 참다운 진로를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나라에서 제일 중요한것은 관료주의를 없애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관료주의는 주관주의에서 나온다고, 사회주의경리는 집단경리이라고, 그렇기때문에 사회주의나라에서는 관료주의가 있으면 사람들이 천반만 쳐다보면서 경제를 잘 관리운영하지 않는다고, 주관주의를 하면 경제를 발전시킬수 없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관료주의를 없애려면 인민들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도시와 농촌, 공장에도 계속 나가보아야 한다고, 그래야 주관주의와 관료주의를 없앨수 있다고, 주관주의와 관료주의가 없으면 사회주의는 발전한다고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관료주의는 독약과 같다고, 관료주의를 부리면 독약을 먹는것이나 다름없다고, 인민대중속에 들어가면 보약을 먹는것과 같다고 교시하시였다.

동유럽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붕괴원인

주체80(1991)년 6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을 방문한 탄자니아혁명당대표단을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제국주의자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평화적이행》전략을 집요하게 추구하였고 또 동유럽나라들은 자주성이 없이 쏘련식대로 혁명을 하다나니 다 망하고말았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유럽나라들의 붕괴원인에 대해 더 상세히 설명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동유럽나라들은 제2차 세계대전때 쏘련군대가 쭉 밀고나오니까 우리가 나갈 길은 사회주의라고 하였다고, 그때부터 그 나라들은 남이 하라는대로 따라하였다고, 모스크바에서 비가 내려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다니면 그 나라 사람들도 덮어놓고 우산을 쓰고다닌다고 할 정도였다고 하시며 이 나라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성을 견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심각히 지적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인민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 이 네가지 구호를 들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하고있다고 교시하시였다.

《핵무기》나 《딸라무기》에 비할바없이 우월한 《노래포》

주체79(1990)년 10월 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창건 45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선을 방문한 미국사회로동당 전국비서를 만나주시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진 사태와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실것을 부탁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평화적이행전략》에 따라 총포소리없는 전쟁을 벌려놓고 사회주의를 악랄하게 공격하고있다고, 이로 말미암아 사회주의운동안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있다고, 오늘 사회주의운동은 시련을 겪고있다고 할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적기가》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가사에《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라는 구절이 있다고, 노래가사에도 있는바와 같이 비겁한자들이 간다 해도 혁명하는 사람들은 굳게 뭉쳐 혁명을 끝까지 계속할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에게 우리는 아시아에서 붉은기를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나아갈것이라고 그루를 박아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돌아간 그는 평양방문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지금 제국주의렬강들은 《핵무기》나 《딸라무기》를 가지고 조선을 어째보려고 하고있지만 그것은 한갖 개꿈에 불과한것이라고, 왜냐하면 조선에는 《핵무기》나 《딸라무기》에 비할바없이 우월한 《노래포》가 있기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누군가가 그에게 《노래포》란 어떤 신형무기인가고 묻자 그는 그것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부르는 신념의 노래 《적기가》이라고 대답하였다.

혼연일체의 근본리치

1974년 9월에 또고공화국 대통령이 조선을 방문하는 과정에 제일 부러워한것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수령과 인민간의 혼연일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를 여러 차례 만나주시고 지방참관에 함께 동행도 해주시면서 그가 알고싶어하는 문제들에 대해 귀중한 교시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대중은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지 못하면 큰 힘을 발휘할수 없다고, 우리는 전체 인민들이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할데 대한 구호를 제시하고 인민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고있다고 하시며 혁명과 건설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수령의 역할에 대하여 줄곧 생각하고있는 대통령에게 수령은 혁명대오안에서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고, 현명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하는 인민대중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할수 없다고, 군대도 마찬가지이라고, 지휘관이 우유부단하면 전사들의 기분상태도 나빠지고 전투에서도 승리할수 없다고, 지휘관은 전사들속에서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고 차근차근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경험

주체66(1977)년 6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을 공식친선방문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 총리를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에서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경험에 대해 묻는 그에게 해방직후 제반 민주개혁을 성과적으로 실시하던 과정, 전후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완성하던 과정, 승리한 사회주의제도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다그치던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였다. 조선에서 민족간부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에 대하여 알고싶어하는 그에게 그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해설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기 나라에서 농업과 수산업에 복무하는 기계공업부터 발전시켜야 할것 같다는 그의 견해에 수긍해주시면서 전력만 있으면 공업을 얼마든지 발전시킬수 있다고, 귀국에서는 수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로 기계공업을 발전시켜 농기계공장이나 나라에 풍부한 나무를 리용할수 있는 목재가공공장같은것을 건설할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또한 철도가 없는 라오스에서는 자동차공업을 발전시켜 자동차로 수송문제를 푸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일깨워주시였다.

문화혁명의 경험

주체63(1974)년 3월 알제리국가수반이 조선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온 자리에서 조선에서 진행되고있는 문화혁명의 내용이 무엇인가고 정중히 문의하였다.

이에 대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문화혁명은 다른 나라에서 하는 문화혁명과 같지 않다고, 우리가 내세운 문화혁명의 중요한 과업은 모든 근로자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지식수준을 빨리 높이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근로자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그들속에서 학습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이 조선을 전체 인민이 학습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데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사람들의 문화수준과 기술수준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떨어지면 사대주의가 생겨날수 있다는데 대하여,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건전한 토대우에서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반대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하나하나 일깨워주시였다.

6) 세계자주화의 앞길을 밝혀주시며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69(1980)년 5월 녀류작가 루이저 린저를 만나주시였을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히틀러파시스트를 반대하여 싸웠으며 그로 하여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그가 조선을 방문한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우리들이 서로 초면이지만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안고 한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눌수 있는것은 다같이 공동투쟁의 길을 걸어왔기때문이라고 진심어린 어조로 교시하시면서 그에게 현시대의 추이에 대하여 알기 쉽게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현시대는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성의 시대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주성을 지키는것은 매개 민족의 권리이며 자주성이 있어야 민족의 행복이 있고 영예가 있으며 자주성을 가진 민족이라야 참다운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고, 오늘 자주성을 지향해나가는것이 하나의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는데 대하여 사실자료들을 들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매개 나라들이 나라와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을 견지하는데서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대하여서와 현시대의 추세에 역행하는 대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현시기 인류해방운동앞에 나서는 문제

주체77(1988)년 10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딸리아라지오 및 TV방송회사 지국장을 만나주시고 그가 올린 질문들에 대답을 주시였다.

이날에 올린 질문들가운데는 그이께 제2차 세계대전후 두 세대를 거쳐 오신 오늘의 유일한 국가수반으로서 현시기 인류해방운동앞에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달라는 청탁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류사회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것은 력사발전의 어길수 없는 법칙이라고 하시면서 사회주의는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간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사회이며 세계평화의 리념과 인류공동의 념원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우월한 사회라고 명백히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공세가 강화될수록 사회주의나라들은 혁명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하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자면

주체63(1974)년 6월 13일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뵙는 영광의 기회에 주체사상과 조선혁명, 수령님께서 하시는 사업이 조선과 세계적범위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하는 질문을 올리였다.

그의 질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맑스-레닌주의가 아니라 독창적인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독자적인 로선과 전략으로 조선혁명을 이끌어오시였고 조선식사회주의건설을 진척시켜나가고계시는것이 전반적인 세계혁명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가 하는것을 알고싶은데서부터 올린 질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올린 질문에 주체사상에 대한 해설을 하여주시는것으로부터 대답을 주시면서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는 매개 나라에서 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만 이룩될수 있다고, 우리가 주체를 세우고 조선혁명을 옳바로 령도하여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

로 건설하면 그것은 우리의 민족적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세계혁명발전에도 직접 이바지하는것으로 될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세계혁명운동발전의 법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57(1968)년 10월 체 게바라 전사 1돐에 즈음하여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기관리론잡지 《뜨리꼰띠넨딸》 제8호에 론문을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론문에서 매개 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서로 지지하고 보충하는 관계에서 세계혁명이라는 하나의 흐름에 합류하고있다고, 먼저 승리한 혁명은 자기의 경험과 모범으로써 아직 승리하지 못한 나라들의 혁명을 도와주고 자기의 정치경제군사적힘으로 세계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적극 지원하며 아직 혁명이 승리하지 못한 나라 인민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정책으로부터 승리한 다른 나라 혁명을 보위하고 자기 나라 혁명의 승리를 앞당겨야 한다고, 이렇게 하는것은 세계혁명운동발전의 법칙이며 이미 인민들의 해방투쟁과정에서 이룩된 훌륭한 전통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71(1982)년 10월 26일 당시 조선을 방문하고있던 파키스탄대통령을 수행한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 대통령과의 담화와 파키스탄신문 《무슬림》 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그들이 알고싶어하는 문제들에 대해 일일이 말씀해주시고도 이 나라의 각 신문사, 방송보도기관의 기자들이 올리는 여러 질문들에 또다시 구체적인 대답을 주시였다.

그들이 올린 질문들가운데는 국제문제에 대한 가장 넓고 깊은 리해를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 국제긴장상태를 완화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 하는 APP통신사 기자의 질문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대답을 주시면서 오늘 국제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긴장하다고, 국제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하자면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해서는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외세의 온갖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적독립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2. 참다운 국제주의자의 귀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의와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을 생사를 같이할 형제로 여기시고 그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마다 그들 못지 않게 커다란 고충과 안타까움으로 마음쓰시며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지지성원을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나라 인민들의 반제반식민주의투쟁 그리고 평화와 진보를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입니다.》

정의와 진보를 위한 투쟁이라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보내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은 바로 누구도 따를수 없는 그이의 숭고한 국제적의리와 정의감으로 불타는 위대한 인간애에서 출발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방대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여야 하는 어려운 속에서도 머나먼 라틴아메리카와 지중해연안의 아랍나라들,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나 새 사회건설의 길에 들어선 아프리카의 나라들을 비롯한 정의와 진보를 위한 투쟁에 나선 세계인민들을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사심없이 적극 지원하시였다.

정의와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을 도와주실수 있는껏 다 도와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단 한번도 거절하시거나 외면하신적이 없었다. 그이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요구이상으로 평생토록 위해주고 도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국제주의는 인류해방투쟁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숭고한 혁명적의리의 장거였다.

돌이켜보면 인류력사에는 정의와 진보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지지와 고무를 보내거나 지원과 방조를 준 위인들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위대한 수령님처럼 그 어떤 자그마한 사심도 없이 정의와 진보의 길에 나선 인민들의 투쟁을 평생토록 피로써, 물심량면으로 도와준 위인은 어디에

도 있어본적이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국제주의와 혁명적의리심은 진보적인류를 정의와 진보의 광명한 세계에로 힘있게 이끌어준 추동력으로 되였다.

하기에 오늘도 세계 진보적인사들, 인민들은 한결같이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정의와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에게 자그마한 사심도 없는 뜨거운 지원의 손길을 보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참다운 국제주의자로, 진보적인류의 어버이로 높이 우러러 흠모하며 칭송하고있다.

1) 정의의 투쟁에 대한 원칙적인 지지성원

꾸바혁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시여

주체75(1986)년 3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을 방문한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꾸바국가리사회 위원장인 피델 까스뜨로를 단장으로 하는 꾸바의 당 및 정부대표단을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꾸바혁명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의 립장을 굳게 표명하시여 그들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을 주시고 그들의 조선방문을 환영하는 연회도 성대히 마련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연회연설에서 두 나라 인민들은 일찍부터 계급적형제로서 두터운 친선의 뉴대를 맺고 반제투쟁의 전초선에서 함께 싸워왔으며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서로 긴밀히 지지협조하여왔다고 하시면서 꾸바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길을 개척한 영웅의 나라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형제적꾸바인민이 꾸바혁명을 말살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과 꾸바인민은 제국주의자를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영원히 한전호에서 함께 싸워나갈것이라고 힘있게 강조하시였다.

국제적인 지지와 성원은 윁남에도

주체53(1964)년 10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인솔하시고 첨예한 정치군사정세속에 있는 윁남을 방문하시였다.

윁남땅을 몸소 찾아주신 그이께서는 국가주석 호지명과 회담을 하시면서 싸우는 윁남인민을 크게 고무해주시였으며 그들이 요구하는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반둥회의 10돐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시였을 때에도 그 나라에 온 윁남의 지도간부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만나주시고 국제적범위에서 그들을 지지하고 성원하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을 토론해주시였으며 있는 힘을 다하여 돕겠다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의 립장을 거듭 표명하시였다.

인도네시아방문을 마치시고 조국에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54(1965)년 5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4차회의에서 윁남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원할데 대한 문제를 첫째 의정으로 토의하도록 하시고 윁남인민의 투쟁을 지원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으며 련이어 윁남인민회의와 남부윁남민족해방전선에 련대성 편지를 보내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선에 온 남부윁남민족해방전선 대표단을 친히 만나주시고 호지명주석은 최전선에서 싸우는 지도자이며 유능한 국제활동가라고 하시면서 남부윁남인민들의 투쟁은 우리 인민들의 모범으로 된다고 교시하시였다.

팔레스티나민족해방운동대표단을 만나시여

주체66(1977)년 7월 1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을 방문하고있는 팔레스티나민족해방운동대표단을 만나주시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중동을 비롯한 전 세계의 정의의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성원을 하여주시는 그이께 진보적인류의 마음을 담아 삼가 감사의 인사를 올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준전시상태나 다름없는 준엄한 정세속에서 살면서도 다른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해주는것은 누구의 찬사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제반미공동투쟁에서 지닌 국제주의적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 싸우는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지지성원을 보내주는것은 응당 해야 할 일을 하는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2) 물심량면의 지원과 방조

조중인민의 반일통일전선을 형성하시여

주체20(1931)년 12월 16일 연길현 명월구회의는 조선혁명사에서 일제와의 항일대전을 선포한 력사적회의로뿐아니라 조중인민의 반일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을 중요한 로선적문제로 제기한 회의로 기록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회의에서 조중인민의 광범한 반제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력사적과업을 조선혁명앞에 제시하시였다.

조중 두 나라가 처한 처지의 류사성, 두 나라 인민들이 지니고있는 시대적사명의 공통성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중반일력량의 단합을 항구적인 전략적과업으로 내세우시였다.

이 전략적과업을 실천에 옮기시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장 큰 힘을 기울이신 문제의 하나는 항일련합군을 조직하여 반일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중국의 혁명가들을 돕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노력에 의하여 1930년대 전반기에 일제를 반대하는 치렬한 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만주의 광활한 지역에 두 나라 혁명가들이 지도하는 항일련합군(동북항일련군)이 조직되게 되였다.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자!》는 구호를 높이 드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26(1937)년 11월 10일에 조선인민혁명군 대내기관지 《서광》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에서 우리는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자!》는 구호를 계속 높이 들고 일본제국주의의 후방을 끊임없이 공격하여 놈들을 항상 전률케 하며 쏘련에 대한 일제의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파탄시켜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조선인민혁명군을 이끄시여 세계최초의 사회주의국가인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심으로써 참다운 국제주의의 귀중한 모범을 보여주시였으며 인류해방위업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38(1949)년 몹소 정부대표단을 인솔하시고 쏘련을 공식친선방문하시였을 때 쓰딸린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성대한 연회를 차리고 신뢰와 친선의 정이 흘러넘치는 축배사에서 20여성상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일제를 반대하는 싸움에서 기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항일유격대를 조직령도하신 **김일성**동지는 동방에서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쏘련을 피로써 옹호하여주신 참다운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자이시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중국동북혁명의 운명을 두고

갓 조직된 중국동북민주련군은 장개석도당과의 힘겨운 싸움끝에 적들의 포위속에 들게 되였다.

막다른 골목에 이른 료녕군구 사령원 소화는 그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의주에 나와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정치부주임을 파

견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의 요구는 시간적으로 보나 정황으로 보나 매우 긴급한것이였다.

동북혁명의 운명을 두고 못내 심려하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국혁명가들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주체34(1945)년 11월말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압록강을 건너 단동으로 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구사령부의 작전협의회에서 여러 지휘성원들의 보고를 들으시면서 적군의 배치정형과 기동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조성된 일시적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전술적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국동북지방에 조직된 조선인부대들이 동북해방전투에서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구체적인 작전전투방향과 활동원칙들을 밝혀주시여 중국동북지방을 해방하는데서 결정적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게 하시였다.

하기에 중국의 주은래총리는 일찌기 《과거 중국인민의 항일전쟁기간과 여러 차례에 걸친 국내혁명전쟁기간에 조선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중국인민을 지원하였다.》고 뜨거운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싸우는 웰남인민의 해방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주체53(1964)년 11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싸우는 웰남을 방문하시였을 때였다.

호지명주석은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들이 지상전에는 자신이 있는데 미제의 비행기때문에 애를 먹고있으며 고사화력만 가지고는 북부웰남을 폭격하는 미국비행기들을 막아낼수 없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웰남에서 요구하면 얼마든지 공군지원병을 보낼 용의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의 간절한 청을 쾌히 승낙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웰남에 파견된 조선의 공군장병들은 주체55(1966)년 11월부터 주체58(1969)년 2월까지 웰남전쟁에 참가하여 수많은 전투들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집단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국제주의 전사로서의 영예를 빛내이였다.

당학교를 세워주시여

1970년대중엽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청으로 또고공화국 대통령이 큰 대표단을 무어가지고 조선을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간부가 없어 애로를 느끼고있는 그 나라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조선의 해당 부문 일군들을 보내여 또고에 당학교를 건설해주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학교를 지어주려면 멋있게 지어주어야 한다고, 우리 나라에서 자재를 싣고가기 힘든것은 사서라도 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나라에 고급당학교를 선물로 잘 지어주자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또고의 수도에는 1만 5 000㎡의 넓은 면적을 차지한 인민련합고급당학교가 세워져 이 나라의 새 사회건설을 지도할수 있는 능력있는 일군들을 수많이 키워냈다.

로력지원대에 주신 당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59(1970)년 1월 꾸바정부의 요청대로 사탕 1 000만t생산투쟁을 위한데 쓰일 기술장비와 정치사업력량까지 망라한 100여명의 끌끌한 청년집단으로 무어진 로력지원대를 꾸바로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력지원대가 그 나라의 모든 풍속을 존중해야 한다고, 그 나라의 사회주의제도를 존중하고 그 나라의 재산을 애호해야 한다고, 풀 한포기, 나무 한대라도 망탕 다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그 나라의 당, 정부, 수령을 존중할줄 알아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사심없는 방조

어느해인가 스리랑카 총리는 정부경제계획부 고문인 자기 아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보내여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리의 부탁은 우리에 대한 커다란 기대의 표시라고 하시면서 성의껏 다 도와주겠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당신들이 물이 없어 농사를 잘 짓지 못하는 조건에서 관개공사를 도와줄수 있다고, 당신들이 요구하면 관개기술자들과 양수설비같은것을 보내주겠다고 하시였다.

그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요구되면 뜨락또르와 련결농기계도 주겠다고, 지난날에는 우리가 만든 뜨락또르가 더운 지방에 가서 견디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질이 높아져서 능히 견딜수 있을것 같으니 뜨락또르와 련결농기계도 가져다가 농사짓는데 리용하라고 따뜻이 이르시였다.

현대적인 도자기공장을 일떠세워주시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말리가 새 사회건설에서 곤난을 겪고있다는것을 헤아리시고 친히 도자기실습생들을 받도록 하시였을뿐아니라 주체52(1963)년10월 10일에는 그들을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는 크고작은 도자기공장이 많다고, 말리의 도자기공업을 위해서라면 그 어데이건 실습대상지로 제공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실습기간도 당신들의 요구대로 정하도록 해야 하겠다고, 6개월내에 당신네 실습생들이 도자기기술을 다 배운다면 더욱 좋고 만일 그렇지 못하면 기한에 구애될것이 아니라 온 목적이 기술을 배우러왔으니만큼 익숙될 때까지 실습하는것이 좋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것

을 환영한다고, 위생자기랑 실습하려면 시간이 좀더 걸릴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신들의 요구대로 일용자기와 위생자기를 생산하는 기술도 배워주고 생산조직을 비롯한 도자기공장관리운영방법도 배워줄수 있다고, 우리는 귀국에서 온 실습생들을 우리 사람들처럼 인정하고 그들에게 모든 기술을 충분히 배워주겠다고 하시면서 친히 그들을 문밖에까지 바래워주시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도자기공장건설까지 다 맡아해주었으면 하는 말리정부의 청도 기꺼이 수락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건설기술자들을 파견해주시고 수많은 건설용자재와 생산설비들을 보내주시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말리에는 현대적인 도자기공장이 일떠섰다.

무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주체64(1975)년 3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을 방문한 모잠비끄해방전선 위원장을 친히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조선이 농업기술분야와 교육사업, 보건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모잠비끄의 새 사회건설을 도와줄수 있다고 하시면서 도와주는 형식은 무상원조형식도 있고 차관형식도 있다고, 그러나 기본은 무상으로 도와주는것이라고, 우리는 당신들을 도와주는 대신에 당신들한테서 무엇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교시하시였다.

3. 만민의 어버이

예로부터 부모의 사랑은 한가정을 넘지 못하고 정치지도자의 사랑은 한 나라의 지경을 넘지 못한다고 하였다. 사상과 정견,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여 만사람의 서로 다른 속생각과 마음을 리해해주고 그들모두를 뜨거운 품에 안아준다는것은 누구나가 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하기에 그 어느 위인이 온 인류를 품어주었다는 이야기는 인류사상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온 인류를 뜨거운 품에 안아 믿음과 사랑, 열과 정을 안겨주신 만민의 어버이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김일성**동지는 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만민이 우러르는 절세의 위인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의 도량과 포용력에는 나라와 민족의 한계도 혈연적차이도 지리적경계선도 없었다. 해빛같은 미소를 담으시고 온 인류를 한품에 안아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은 세계 진보적인류는 물론 적대국가의 한다하는 정치가들까지도 감탄해마지 않는 고매한 인간적풍모였다.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일찌기 그 어느 위인도 지닐수 없었던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인류의 태양이시였으며 인류가 오랜 세월 그토록 갈망하던 운명의 은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20세기 세계정치를 주도하시는 나날에 놀라운 정력으로 대외활동을 벌리시면서 다른 나라의 수많은 국가수반들과 당수반들, 명망높은 정계, 사회계, 학계, 예술계의 인사들과 각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두터운 정을 나누시며 혁명적동지애와 고결한 국제주의적의리의 력사를 수놓아오시였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운명을 념려하시였고 그들에게 주실수 있는 모든 정을 다 주시였다. 인생은 사람들이 서로

정을 나누고 인연을 맺어가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처럼 한생에 그처럼 많은 외국의 벗들을 만나주시고 두터운 정을 나누신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평생 수많은 나라들에 대한 대외활동로정을 밟으시고 수만명이 넘는 외국인사들을 만나 사업하시였는데 세계에는 이렇게 많은 외국인사들을 만나 대외활동을 벌린 령도자가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설같은 대외활동일화들은 수없이 많고 그이의 남다른 믿음과 사랑을 받아안은 사람들은 세계 5대륙의 그 어디에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적 있는 수많은 외국의 벗들은 오늘도 수령님에 대해 한번 뵈오면 언제나 따르고싶은 위대한 인간이시라고 진정을 토로하고있다.

인종과 민족, 리념과 정견, 지역과 언어의 차이를 초월하여 한평생 인류를 위해주신 사랑이 그처럼 하늘같고 그이께서 인류에게 바치신 피와 땀이 너무도 진하고 기울이신 정이 너무도 크고 뜨거워 온 세상이 그이를 영원히 잊지 못해하고있는것이다.

1)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며

참다운 국제주의전사라고 하시며

1965년 체 게바라는 라틴아메리카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에로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였으며 그 앞장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체 게바라가 전사한지 1년이 되는 주체57(1968)년 10월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기관리론잡지 《뜨리꼰띠넨딸》에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발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로작에서 체 게바라는 투쟁에서 지칠줄 모르는 불굴의 혁명가였으며 편협한 민족주의적감정에서 완전히 벗어난 참다운 국제주의전

사였다고, 그는 자기의 일생을 통하여 견결한 혁명투사, 참다운 국제주의자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하시였다.

주체79(1990)년 10월 5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국사회로동당대표단과 담화를 하시면서 체 게바라는 조선을 사랑하였다고, 꾸바에서 혁명이 승리한 다음 그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고, 체 게바라는 훌륭한 국제주의전사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주체82(1993)년 4월 5일 브라질10월8일혁명운동대표단과 담화를 하실때에도 10월 8일은 체 게바라가 전사한 날일것이라고, 체 게바라는 꾸바혁명이 승리한 다음 인차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고, 나는 그때 그를 만나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으며 식사도 함께 하였다고, 그는 훌륭한 혁명가였으며 참다운 국제주의전사였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전세계로동계급의 영웅으로

주체58(1969)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을 방문한 전 칠레공화국 대통령 알옌데를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전선에서 싸우는 전우를 만났다고 못내 반가와하시면서 우리는 라틴아메리카의 칠레에 당신과 같은 좋은 친우를 가지고있는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시간이 흘러 담화가 끝나자 대통령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시 조선에 오라고, 반제공동전선에서 영원한 전우가 되자고 교시하시였다.

대통령이 희생된 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주재 칠레림시대리대사를 만나주시고 대통령을 추억해주시면서 해외에 피신해있는 그의 누이동생이 조선에 와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 기회에 알옌데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그를 칠레인민의 영웅만이 아닌 전세계로동계급의 영웅으로 찬양해주시였다.

저명한 정치활동가, 자유애호투사로

주체67(1978)년 6월 이딸리아의 저명한 사회정치활동가인 렐리오 바쏘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년로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통일위업을 지지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는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여러분들이 기울인 노력이 결코 헛되이 되지 않을것이며 통일의 그날은 오고야말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밖에까지 나오시여 그를 바래우시며 오늘 선생과 친우로 사귀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앞으로 좋은 계절에 부인과 함께 다시 조선에 오라고, 그때에는 긴 시간을 내여 담화할수 있을것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후 그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적련대성운동의 강화발전에 자기의 있는 지혜와 정열을 다 쏟아부었다.

그러던 그가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애석한 마음을 금치 못해하시며 그의 유가족에게 보내신 조전에서 그를 저명한 정치활동가, 자유애호투사로 불러주시며 정의와 민주주의, 조선의 통일을 위한 위업에 남긴 그의 업적을 높이 평가해주시고 은정어린 선물을 보내주시였다.

금시계를 선물로 안겨주시며

주체73(1984)년 5월 2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외국방문의 장정을 이어가시던 길에 로씨야의 노비첸꼬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시였다.

노비첸꼬는 해방직후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지켜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내댄 국제주의전사였다.

수십년세월이 흐르도록 그를 잊지 않고 심중에 새겨두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광활한 씨비리대지를 횡단하시는 길에 노보씨비르스크의 농촌마을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있던 그를 만나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가 살아온 경위와 가정형편에 대해 일일이 알아보시고 세월의 이끼속에 파묻혀있던 그의 위훈을 하나하나 회고해주시였다.

노비첸끄와 헤여지신 후 그이께서는 그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시고 그의 위훈을 내용으로 하는 영화도 하나 잘 만들어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외국방문을 마치신지 얼마 안되여 노비첸끄와 그의 가족을 평양으로 불러주시였다.

머나먼 지방현지지도의 길에서 노비첸끄를 만나주신 그이께서는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나섰던 대담무쌍한 영웅전사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자신의 존함이 새겨진 금시계를 선물로 안겨주시였다.

그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노비첸끄를 자주 조선으로 불러주시고 주실수 있는 사랑과 은정을 다 돌려주시였다.

훌륭한 동지를 얻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며

주체71 (1982) 년 5월 1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을 방문하고있는 일본의 이노우에 슈하찌를 몸소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당신과 같은 훌륭한 동지를 얻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와 기념사진을 찍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헤여지기에 앞서 그에게 다시 오면 그때에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눌수 있을것이라고, 오늘은 처음 만나지만 앞으로 다시 만나면 구면친구로 될것이라고, 다음번에 올 때에는 가족과 함께 오는것이 좋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선에 오도록 초청하시고 국가적인 주요기념행사들에도 참가하도록 하시였으며 여러차례에 걸쳐 따뜻이 만나주시였다. 그가 생일 60돐을 맞을 때에는 자신의 존함이 새겨진 금시계도 안겨주시였다.

주체79 (1990) 년 9월 17일 조선을 방문한 그를 또다시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그가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으로 된것을 축하해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표단성원들과 단란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고 연회도 마련해주시였으며 축배잔까지 찧어주시였다.

주체82 (1993) 년 9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노우에 그가 첫 국제**김일성**상을 수여받았을 때에도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그를 만나주시고 자신의 곁에 세워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한량없는 은정을 베푸시였다.

우리들사이의 우정은 영원할것이라고 하시며

주체74(1985)년 8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을 또다시 방문한 에꽈도르의 어느한 출판사 사장인 움베르또 오르데스 플로레스와 그의 가족을 만나주시고 오찬을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은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을 때가 제일 기쁘고 행복했다고, 젊어서 지하투쟁을 할 때나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도 평범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자신께서는 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지지와 동정을 받아왔기때문에 투쟁에서 승리할수 있었다고 감회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신을 위해 생명을 바친 장울화렬사에 대해서도, 도이췰란드의 녀류작가 루이저 린저에 대해서도 회고하시며 자신께서는 당신을 우에서 이야기한 외국의 벗들과 꼭같은 전우로 생각한다고, 우리들사이의 우정은 영원할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390 여차례나 만나뵈온 대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54(1965)년 4월 반둥회의 10돐 행사에 참가하여 캄보쟈의 시하누크대왕과 첫 상봉을 하신 그때로부터 근 30

년세월 변함없는 의리로 곡절많은 인생길을 걸은 그를 지켜주고 지지고무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0년 3월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기회에 캄보쟈에서 군사정변이 일어나 실각당한 그를 조선에 초청하여 그가 사소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훌륭한 숙소도 마련해주시고 외로와할세라 바쁜 시간을 내여 자주 만나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시하누크를 40여차나 조선에 초청하여 무려 390여차례나 만나주시며 다심한 은정을 부어주시였다.

언제인가 시하누크는 위대한 수령님께 조선에 자주 찾아와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고 말씀드린적이 있었다.

이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친우들사이에 무슨 그런 말을 다 하는가고 하시면서 어떤 나라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엇때문에 친왕을 조선에 자꾸 초청하는가고 말하군 한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께서는 그들에게 자신과 친왕사이의 관계는 형제사이의 관계이라고, 자신께서는 친왕을 일단 벗으로, 친구로 사귀였고 친왕과 형제관계를 맺은 이상 그가 왕으로 있든, 그 무엇으로 있든 계속 자신의 친구이라고, 자신께서는 영원히 친왕을 지지할것이라고 이야기하였더니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고. 자신께서는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주체적인 립장에 서서 사람들을 대하고 평가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변함없이 의리를 지킨다고 교시하시였다.

일본인민들을 반대하여 싸운적은 없다고 하시며

주체60(1971)년 10월 일본의 전 도꾜도 지사 미노베 료기찌의 조선방문의향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가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위해 적지 않은 기여를 한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그의 조선방문을 기꺼이 수락하시였다.

그후 조선을 방문한 그를 친히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도꾜도 지사로서만이 아니라 친우로 맞이하게 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 지난날 일본이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수많은 죄과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깊이 사죄하는바이라고 말씀올렸다. 계속하여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 일본과 조선은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꾜에서 평양까지 오는데 2～3일이 걸린다고 하면서 두 나라 관계가 정상화되면 아시아의 평화를 이룩하는데서도 큰 문제가 해결될것이라고 말씀올렸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본의 당국자들이 우리에게 사죄하는것은 응당하지만 일본인민들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한다고, 자신께서는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몇십년동안 싸웠지만 일본인민들을 반대하여 싸운적은 없다고 교시하시였다.

이날 그의 일행을 위하여 친히 오찬까지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은 그만두고 가정적분위기에서 점심식사나 하자고 다정하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그는 조선인민이 짧은 기간에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는 놀라운 전변을 이룩할수 있은것은 **김일성**각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라고 말씀올리고나서 공장과 농촌에 자주 나가시는가고 질문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자주 나간다고, 사회주의나라에서 집권당들이 관료주의와 주관주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도일군들이 공장과 농촌에 자주 나가야 한다고, 그래야 군중의 의견을 들을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2)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며

중국의 혁명가들에게 돌려주신 사랑

주보중

중국의 주보중은 1930년대초엽 동만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처음으로 만나뵙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날 주보중과 항일전쟁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조중 두 나라 유격부대의 협동작전에 관한 문제 등을 놓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1934년 가을 주보중이 크고작은 반일부대들을 묶어세우는 일때문에 안타까운 나날을 보내고있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선을 헤치시고 주보중을 찾아가시여 그 해결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투에서 부상당한 주보중의 상처자리부터 살펴보시면서 몸소 구해가지고오신 약을 발라주시고 붕대도 감아주시였으며 그의 키에 맞게 손잡이까지 있는 지팡이도 만들어주시였다.

1948년 가을 동북해방전쟁을 치르느라 주보중의 건강이 몹시 나빠졌다는것을 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와 가족을 평양에 데려다가 휴양을 시키도록 하여주시였다. 그리하여 주보중과 그의 가족은 석달동안이나 위대한 수령님의 저택에서 생활하였으며 친부모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한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4년 겨울 중국방문의 나날 주보중의 집을 몸소 찾아주시고 병석에 있는 그를 고무해주시였으며 그후에도 중국을 방문하실 때마다 그를 만나시여 사랑의 선물도 한가득 안겨주시였다.

풍중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잊지 못해하신 국제련합군시절의 중국의 전우들가운데는 동북항일련군 3로군 정치위원을 하던 풍중운도 있다.

1958년 풍중운이 중국 수리전력부대표단 단장으로 조선을 방문하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너무도 반갑고 기쁘시여 즉시에 그를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에서 즐겁고 유쾌한 나날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이 기회에 전우들도 만나 회포를 나누라고 하시며 은정어린 대책도 세워주시였다.

1959년 1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농업협동화를 승리적으로 총화하는 전국농업협동조합대회를 축하하기 위하여 조선에 오는 중국의 고위급대표단에 풍중운의 딸이 망라되여있다는것을 아시고 매우 기뻐하시면서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그를 만나주시였다.

며칠후 풍중운의 딸과 그의 가족을 불러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과 식사도 함께 하시고 사진도 찍어주시였으며 다음부터는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오라고 간곡히 이르시고나서 그들모두에게 은정어린 선물도 안겨주시였다.

1960년대초에 조선을 또다시 찾은 풍중운을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전우를 다시 만나니 매우 반갑다고 하시면서 함께 금강산에 가시여 명승지들과 유적들의 안내자, 소개자가 되여주시고 장시간 마주앉으시여 항일전의 나날을 회고하시며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위증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국의 위증민을 처음으로 만나신것은 주체24(1935)년 2월 다홍왜회의에서였다.

약 10일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배타주의자들과 단신으로 싸우시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때 만주성당 파견원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가한 위증민의 리성적판단과 공정한 태도는 위대한 수령님께 적지 않은 도움으로 되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과 위증민사이의 우정은 더욱더 깊어졌다.

그이께서는 위증민을 위해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을 다 부어주시였다. 위증민이 부상당했을 때에는 병원을 꾸려주시고 고질적인 병이 도졌을 때

에는 그를 위한 료양소도 지어주시였으며 귀중한 약품과 식량, 식료품까지 보장해주시였다. 뿐만아니라 그가 요구하면 살붙이처럼 아끼며 키워온 사랑하는 전사들도 기꺼이 보내주시였으며 준비된 대원들로 경위련대까지 꾸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에 끝없이 매혹된 위증민은 그이께서 내놓으신 로선을 언제나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일제의 관헌자료까지도 위증민을 《**김일성**장군의 정치위원》으로 기록하였다고 한다.

중병으로 림종이 박두했을 때 위증민은 전우들에게 꼭 **김일성**동지를 찾아가라고 당부하였다.

은혜로운 사랑은 대를 이어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이 조선인민의 승리로 끝난 직후 전 민주도이췰란드의 초대내각수상이였던 옷토 그로테볼은 조선의 전후복구사업을 성의를 다하여 지원하며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와 단결을 영원히 상징하기 위하여 함흥시건설을 도울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함흥시복구건설사업에 우수한 건설기술자들을 파견하면서 설계가인 자기의 아들과 며느리를 함흥으로 보내였다. 그리고 1955년 12월에 조선을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가 두 나라사이의 친선과 단결의 뉴대의 강화를 위하여, 조선에서의 전후복구사업을 위하여 기울이고있는 노력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그에게 함흥명예시민칭호를 수여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서거하였을 때에는 깊은 애도의 뜻이 담긴 조전을 보내시였다.

그로부터 여러해가 지난 주체58 (1969) 년 5월에는 그의 부인과 함흥시건설에 참가하였던 그의 아들부부가 조선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도록 특별비행기를 보내여 평양으로 불러주시였다.

어느해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 및 국가대표단을 인솔하시고 도이췰란드를 공식방문하신적이 있었다.

방문일정을 끝마치고 베를린을 떠나시기 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옷토 그로테볼의 아들을 만나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앞으로 우리의 전우로서 가족과 함께 자주 조선에 오기를 바란다고 하시였으며 자신의 인사를 가족들에게 전해줄것을 부탁하시였다.

다시 만나신 20 여년전의 전우

주체63(1974)년 로므니아의 평범한 한 녀의사와 그의 남편이 조선을 방문하였다.

그 녀의사로 말하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선에 와있으면서 조선인민을 성심성의로 치료해준 의사였다. 그는 기총탄이 우박치는 속에서도 거리와 마을을 찾아다니며 무려 3 500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치료해주었고 그중 270여명을 수술하였다.

공화국정부에서는 그의 헌신성과 국제주의정신을 높이 평가하여 그에게 훈장과 기념메달을 수여하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를 잊지 않으시고 조선을 방문하도록 초청해주시였으며 금강산을 비롯한 명승지들을 다 돌아보도록 세심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몸소 녀의사와 그의 남편을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았다고, 20여년만에 만났지만 멀리서도 모습을 알아보았다고, 당신은 조선인민에게 커다란 공헌을 하

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당신이 국제주의전사로서 자기의 임무를 매우 훌륭히 수행하였다는것을 잊지 않고있다는 치하의 말씀도 해주시였다.

그들부부를 위해 오찬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음식을 권하시면서 어려웠던 시절에 자신과 조선인민을 진실로 생각해준 20여년전의 전우를 다시 만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녀의사부부와 축배잔을 쭁으시며 건강한 몸으로 인류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기 바란다고, 머무르는 동안 요구할것이 있으면 무엇이건 다 이야기하라고 이르시였다.

소탈하신 그이의 말씀에 어려움을 다 잊은 녀의사는 체류기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조선에서 더 많은것을 보고싶다는데 대하여서와 조선의 고려의학을 배우고싶다는데 대하여, 혁명가극을 더 보고싶다는데 대하여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 마음껏 있으면서 보고싶은것을 다 보라고, 고려의학을 강의해주도록 하겠다고 하시며 그의 모든 청을 기꺼이 수락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속에 녀의사부부는 2주일동안이나 더 머물러있으면서 자기들의 소원을 모두 성취하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지방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면서도 해당 부문 일군들을 찾으시여 녀의사에게 가극을 다 보여주었는가, 고려의학강의는 무엇을 가지고 했는가에 대해 알아보시였고 돌아갈 때까지 섭섭치 않게 잘 대해주라고 거듭거듭 당부하시였다.

이렇게 20여년만에 조선을 찾아온 녀의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우로서 따뜻한 환대를 받으면서 평생을 두고 잊을수 없는 나날을 보내였다.

조선과 벌가리아사이의 친선관계의 상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45(1956)년 벌가리아를 방문하시는 기회에 쏘피아에 있던 **김일성**학원에서 조선의 전재고아들을 맡아 돌봐주고 키워준 한 녀성을 친히 만나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가 발휘한 소행을 높이 평가해주시였으며 주체48(1959)년 그가 교육대표단 성원으로 조선에 왔을 때에는 자신의 곁으로 불러주시고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였다.

주체73(1984)년 6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벌가리아방문의 마지막날에 두 나라사이의 친선 및 협조에 관한 조약조인식을 비롯한 중요행사들이 맞물려져있었지만 67살난 그를 또다시 찾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부부와 기념사진을 찍으시면서 오늘의 상봉은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친선관계의 상징이라고, 우리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살고있지만 사실상 한집안식구나 다름없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친히 축배잔을 부어주시고 귀중한 선물도 안겨주시였다.

주체74(1985)년 4월 그의 가족일행은 위대한 수령님의 초청을 받고 조선을 방문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가지 국가적인 행사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조선을 방문한 그의 가족일행을 두차례나 만나주시고 오찬회까지 마련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식사를 같이하려고 한다시며 친히 음식까지 권하시였다.

그이의 친어버이사랑속에 그의 일가는 조선방문기간 귀빈으로 떠받들리우며 크나큰 은정을 받아안았으며 돌아가기에 앞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환송연회에까지 초대되게 되였다.

환송연회에서 당시 주조 벌가리아대사는 한 나라의 국가수반이 과거의 평범하였던 한 학교의 교장을 친히 초청해주시고 자신의 손님으로 환대하도록 하여준 실례는 세상에 보기 드문 일이라고, 우리는 반드시 이에 대하

여 깊이 느껴야 할것이라고, 이것은 오직 **김일성**동지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몽골녀성과 그의 딸이 받아안은 사랑

몽골 전 조선전재고아원의 한 녀성직원은 주체45(1956)년 7월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몸가까이에서 뵈옵고 그이의 자애로운 인품에 완전히 매혹되였다.

그때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에 이어 몽골을 국가방문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재고아들이 있는 곳을 찾으시였다. 전쟁의 불길속에서 떠나보내신 고아들이 보고싶으시여 그 멀고 외진 곳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울면서 달려와 옷자락에 매달리는 그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잘 있었는가, 너희들이 아버지, 어머니생각을 할것 같아 내가 왔다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아이들의 손목을 잡으신채 침실도 돌아보시고 식당에서 그들이 먹는 음식도 맛보아주시였으며 예술소품공연도 보아주시였다. 헤여지실 때에는 그들을 두고 차마 걸음을 떼지 못하시며 조선의 간장과 된장을 먹고싶다는 그들의 소박한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시였다.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그 녀성은 위대한 수령님은 만물을 키우고 따사로움을 주는 태양과 같은분이시라는것을 절감하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식료품 등을 받아안고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그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더 잘 보살펴주리라 마음다지고 성심성의를 다하였다.

그때로부터 3년후인 주체48(1959)년 6월 다 자란 전재고아들을 인솔하고 조선을 방문한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주체77(1988)년 6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시 몽골을 친선방문하시였다. 그때 한 일군으로부터 1950년대 조선전재고아들을 맡아 키운 몽골녀성

이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싶어한다는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매우 반가와하시며 긴장한 일정도 뒤로 미루시고 그 녀성과 그의 딸을 친히 만나주시여 또다시 대를 두고 길이 전할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주체77(1988)년 한해가 다 저물어가던 12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을 부르시여 자신께서 몽골을 방문하였을 때 전쟁시기 조선의 전재고아들을 돌봐주던 몽골녀성과 그의 딸이 자신을 찾아왔댔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래 만나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때에 조선에 와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한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새해 1월 1일을 앞두고 그를 딸과 함께 초청할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바로 이렇게 되여 조선을 방문한 그 녀성과 그의 딸은 주체78(1989)년 1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그들을 한집안식구처럼 대해주며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훌륭한 전우이라고 크나큰 믿음도 안겨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그들에게 우리나라를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자주 오라고, 우리에게 폐를 끼친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자주 오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생일상을 차려주시며

주체68(1979)년 9월 1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을 방문한 인디아주체사상연구학회 서기장 비슈와나스와 부인을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비슈와나스와의 상봉은 례사로운것이 아니였다.

당시 조선으로 오던 도중 다른 나라에서 급병으로 쓰러진 비슈와나스의 치료를 위해 사랑의 비행기를 띄워주신분도, 그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 그 누구보다 마음을 써오신분도 바로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그러시고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몸소 만나주신 자리에서 자신께서 당신들을 도와주는것은 의무이라고, 형제로서, 동지로서 당신이 병치료를 잘할것을 권고한다고 뜻깊은 교시를 해주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인디아에 있는 그의 가정에 근심되는 일이 없으면 조선에서 오래동안 휴식하라고 하시면서 미처 본인도 생각지 못했던 생일상까지 차려주시였다.

발로리와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신 사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64(1975)년의 어느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을 위한 유럽위원회가 결성된 기쁨을 안고 조선을 방문한 유럽의 발로리를 만나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위해 오찬도 마련해주시면서 앞으로 꼭 어머니와 함께 다시 오라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어느해인가 발로리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어머니와 함께 조선을 방문한적이 있었다. 그때 그의 어머니는 평양에서 생일을 맞게 되였다. 발로리는 한평생 온갖 고생을 다한 어머니가 고국을 떠나 이국에서 생일을 맞게 되는데 대해 은근히 마음을 쓰게 되였다.

이러한 발로리의 속생각까지 헤아려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어머니에게 생일상을 보내주시였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듯 생일날에는 몸소 그들의 숙소에 찾아오시여 따뜻이 축하해주시고 귀중한 선물을 안겨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후에도 발로리의 어머니가 조선을 다시 방문하도록 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발로리의 어머니가 앓을 때에는 여러가지 귀중한 약품까지 보내주시였으며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몹시 가슴아파하시면서 발로리를 따뜻이 위로해주시였다.

삶과 죽음의 계선을 초월한 의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81 (1992) 년 4월 탄생 80돐을 축하하기 위해 조선에 온 중국의 장울화렬사의 아들 장금천일행을 몸가까이 불러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머지않아 렬사의 사망 55돐이 되여온다는것을 헤아리시고 장금천일행에게 그의 묘소에 자신의 존함으로 된 기념비를 세워주겠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귀국을 앞둔 장금천일행과 또다시 자리를 같이하시고 아버지의 기념비건립행사를 잘 준비하여야 하겠다고,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을 기념비제막행사에 파견하며 기념비를 자동차에 실어 무송에 보내주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주체81 (1992) 년 10월 27일 중국의 무송시내에 있는 장울화렬사의 묘소에서는 기념비건립행사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꾸바녀성이 받아안은 사랑

1951년 5월 조선에서 저지른 미제의 죄행을 조사하는 국제민주녀성련맹의 조사단성원들속에는 아바나종합대학 법률과를 졸업하고 아바나시재판소 변호사로 된 23살의 꾸바처녀가 있었다,

조사단이 공화국북반부의 여러 지역을 돌아보며 목격한 미제의 천인공노할 만행자료를 묶어 작성한 보고서는 유엔총회 의장과 유엔사무총장, 안전보장리사회 의장에게 전달되였으며 이를 계기로 전세계의 모든 녀성들이 미제반대투쟁에 합류해나섰다.

바로 이러한 때인 5월 2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사단성원들을 만나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꾸바대표가 23살의 처녀라는것을 아시고는 먼곳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용케 왔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은 미제

의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꾸바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교시하시였다.

1993년 11월 5일은 그가 위대한 수령님을 두번째로 만나뵈온 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흔해도 지난 그때의 일을 하나하나 회고하시며 그동안에 있은 여러가지 일들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물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그의 손목에 은정어린 금시계를 채워주시며 이제는 년로보장이라니 아무때나 조선에 와서 쉬고가라고, 평양을 제 집처럼 여기고 자주 오라고 다정히 교시하시였다.

그후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따랐으며 자주 평양을 찾아왔다.

그럴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오랜 시간 만나주시고 그가 쓴 글도 빠짐없이 읽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의 마지막시기인 1994년 6월에도 그를 만나주시였다.

그가 위대한 수령님의 건강을 바라며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그이께서는 오히려 그의 건강을 념려하시며 자신께서는 건강하니 10년은 더 일할수 있다고, 우리 더 건강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자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두번째 생을 받아안은 대표단 단장

주체53(1964)년 9월초 어느날 당시 기네전국공보위원회 위원장은 기네공화국 국립방송국대표단 단장으로 대표단을 이끌고 조선을 방문하기 위하여 중국 베이징에서 렬차에 올랐다.

렬차가 떠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몸에서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하였다. 해열제를 먹고 좀 나아지는것 같아 그는 평양에 도착한 후에도 치료를 받지 않고 환영연회에 참가하였다. 그런데 수그러든줄 알았던 병이 또

다시 머리를 쳐들었다. 연회가 끝난 후 겨우 숙소에 돌아온 그는 더는 견딜수가 없어 아픔을 호소하였다. 의사들이 달려와 진찰을 하였으나 결과는 매우 심각하였다. 생명이 경각에 도달하였던것이다.

이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유능한 의사들을 총동원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살려내야 한다고 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다.

조선의 관록있는 의학박사들의 참가밑에 그를 구원하기 위한 의사협의회가 진행되고 련이어 치료전투가 벌어졌다.

장시간의 긴장한 수술후 드디여 그가 정신을 차리였다.

조선의 의사들은 물론 그가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맥을 놓고있던 대표단성원들도 환성을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정신을 차리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대단히 만족해하시면서 빨리 회복시키라는 과업을 주시였다.

첫 수술후 그는 비록 죽음의 나락에서 구원되였지만 다른 병이 겹치여 3차례의 수술을 더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조선의사들의 지극한 정성에 의하여 그의 병은 나날이 호전되여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더없이 기뻐하시며 신선한 과일과 식료품도 보내주시였다.

주체53(1964)년 11월 30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시여 그의 걸음걸이부터 유심히 살피시고나서 자신의 곁에 앉혀주시였다. 그리고 수술자리도 만져보시고 수술자리가 결리지 않는가고 물으시며 그의 건강을 놓고 여러모로 마음을 쓰시였다. 얼마후 그이께서는 치료를 담당한 의사들과 간호원들이 어려운 수술을 용케 했다고, 국제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였다고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완쾌된 다음 더 있으면서 휴식도 하고 명승지들과 고적들도 돌아본 후 천천히 귀국하라고 하시며 뜨거운 은정을 부어주시였다.

그가 병을 깨끗이 털고 조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별비행기까지 내여주시고 그의 치료를 담당하였던 의사와 간호원도 함께 떠나도록 해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그는 조선에 도착한지 4개월만에 완치된 몸으로 조국에 돌아가게 되였다.

그때 기네대통령은 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특별비행기를 타고 건강한 몸으로 귀국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국경을 초월한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인간애에 감복을 금치 못해하면서 그이께 감사의 인사를 삼가 올리였다.

한 청년이 받아안은 사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49(1960)년 11월 조선에서 류학을 마친 인도네시아의 한 청년이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공부하고싶어 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를 희망하는 대학으로 보내주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때부터 그는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연구사로 보람찬 나날을 보내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말 못할 마음속의 고충이 있었다.

이런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마음속걱정을 헤아리시고 결혼문제에 대해 친부모의 심정으로 보살펴주시였다.

그는 만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조선녀성을 배우자로 맞이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조선사람들과 다름없이 국가에서 무상으로 준 살림집에서 새 생활을 펼치게 되였다. 부럼없는 생활속에서 아이들이 태여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가정사정을 친히 헤아리시여 아버지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자식들이 위축되지 않게 내세워주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그의 맏아들과 맏딸을 중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공부까지 하도록 대책을 세워주시였으며 그들이 대학을 졸업하였을 때에는 희망하는 곳에서 일할수 있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녀성국회의원과 그의 가족일행에게 베풀어주신 은정

주체79(1990)년 5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을 방문한 한 에꽈도르녀성국회의원과 그의 가족일행을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고 뜨겁게 포옹해주시였으며 때로 외람된 청을 드리는 그들을 조금도 탓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점심식사나 함께 나누자고 하시면서 그들을 식사가 마련된 방으로 이끄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들에게 음식을 권하기도 하시고 조선에 와서 불편한 점은 없는가, 부족한것은 없는가고 다정히 물어보기도 하시며 조선을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온 가족이 어느때든지 다시 와서 금강산, 묘향산구경도 하면서 즐겁게 휴식하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리고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이기때문에 하늘에서 별을 따오자고 결심하면 별도 따올수 있다고 하시며 조선의 사회주의사회는 인민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높이 내세우는 사회라고, 때문에 조선인민은 자기의 사회주의를 더없이 좋아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헤여지기 전에 기념으로 사진이나 찍자고 하시며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한 언론인이 받아안은 사랑

언제인가 부르끼나 파쏘의 한 언론인은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선을 방문한적이 있었다.

수도 평양에 도착한 며칠후 그는 익숙되지 않은 기후 등으로 인하여 몸이 불편한감을 느끼게 되였다. 바로 이날 모든 대표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뵙게 될 영광의 시각을 기다리고있었다. 그는 불편한 몸이였지만 애써 참으며 중대한 력사적순간을 기다려 마음을 다잡고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건강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급히 병원으로 데리고가서 치료를 받게 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인생에 다시없을 영광의 자리를 떠나고싶지 않아하는 그에게 안내일군이 당신은 귀국하기 전에 위대한 수령님을 꼭 만나뵈올수 있게 될것이라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건강한 당신을 만나보고싶어하신다고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그는 평양의 어느 한 중앙병원으로 가게 되였다. 병원에서는 치료를 맡아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은 의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간호원이 주사놓을 준비를 서두르고있을 때 치료실과 잇닿아있는 의사실에서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그는 송수화기를 든 의사의 존경어리고 숭엄한 태도를 보고 아마 높은 급의 간부와 전화하는것이라고만 생각하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알아보시려고 몸소 전화를 걸어오시였다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당 및 국가사업전반을 돌보시기에 그처럼 바쁘신 그이께서 자기의 건강에 대하여 심려하시며 특별한 관심을 돌려주고계신다는것을 알았을 때 그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출판사 총사장가족에게 돌려주신 사랑

주체 63 (1974) 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에꽈도르의 어느한 출판사 총사장을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출판물을 통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데 대하여 감사하다고, 마치도 옛친구를 만난것과 같은 감정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세계정치정세와 조선의 통일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였다.

그리고 그를 오찬회에 초대하시고 그의 건강을 축원하여 축배잔도 나누시였으며 오찬회가 끝날 때에는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면서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다시 올 때에는 부인과 아이들도 데리고오라고 교시하시였다.

주체66(1977)년 8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히 총사장의 가족일행을 초청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의 안해와 아이들에게 나이는 몇살인가, 조선에 와서 불편한 점은 없는가고 따뜻이 물어주시였으며 그들을 위하여 오찬도 마련해주시였다.

주체69(1980)년 10월 조선을 방문한 총사장이 이곳에서 생일 쉰돐을 맞게 된다는것을 아시고는 친히 생일축하연을 마련해주시고 그에게 훈장을 수여하도록 하신 사실, 어느해 여름 조선을 방문한 둘째아들의 생일을 축하하여 꽃과자와 과일바구니를 보내주신 사실 그리고 맏딸이 결혼하게 되였을 때에는 귀중한 선물을 보내주시고 그들부부를 평양에 불러주신 사실 등 위대한 수령님께서 총사장의 가족에게 돌려주신 사랑과 배려를 다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다.

복받은 세쌍둥이

주체73(1984)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주도이췰란드를 방문하시였다.

베를린시의 전반적건설정형과 살림집건설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서 시내의 주요거리들을 돌아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이들이 많은 가정의 생활형편을 알아보시기 위하여 어느 한 가정에 들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행복한 생활을 하는것을 보니 매우 기쁘다고 하시면서 주인내외의 안내를 받으며 살림방들을 일일이 돌아보시였다.

그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족은 몇명이나 되는가, 어느 공장에서 일하는가, 아이들은 무슨 일을 시키려 하는가, 국가적혜택과 방조는 어떤것인가 등 자식의 장래를 걱정하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하나하나 물어주시였다.

세쌍둥이가 있다는 주인내외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세쌍둥이가 커서 학교에 다닐 때면 방학기간에 그들과 함께 조선에

와서 즐거운 휴양의 나날을 보내라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러시고나서 세쌍둥이를 보자고 이르시였다.

주인내외가 세쌍둥이를 안고오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번 안아보자고 하시면서 한 어린애를 받아안으시고 자신의 무릎우에 앉히시였다.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어린애의 귀여운 얼굴을 들여다보시던 그이께서는 주인내외에게 세쌍둥이를 나라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훌륭한 인재로 잘 키우라고 당부하시였다.

이윽고 가정적분위기가 넘쳐나는 가운데 그 가정은 위대한 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가정의 행복을 축원하시면서 세쌍둥이에게 조선의 세쌍둥이들이 받아안는것과 꼭같은 선물을 안겨주시였다.

잊지 않고 만나주신 관리위원장

주체45(1956)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 민주도이췰란드를 방문하시여 어느한 농업생산협동조합을 돌아보시는 과정에 당시 관리위원장을 알게 되시였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멀리도 흘렀으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잊지 않으시고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을 방문하시는 길에 또다시 그를 만나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를 뜨겁게 포옹하시고 기념사진까지 찍으시였다. 그러시고는 그에게 가족을 데리고 우리 나라에 한번 오라고, 자신께서는 우리나라에서 당신과 감격적으로 상봉할것을 희망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초청에 의해 그는 다음해 안해와 함께 조선을 방문하게 되였다.

그들이 조선에 도착한 그날 저녁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TV화면을 통하여 지팡이를 짚고 비행기승강대를 조심스럽게 내리는 그들부부를 대뜸 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한 일군을 부르시여 부부일행의 조선방문일정을 긴장하게 짜지 말아야 하겠다고, 오전에 어느 단위를 참관하면 오후에는 휴식시키고 오후에 행사를 예견하면 오전에 휴식시키도록 하여야 한다고 세심히 이르시였다. 그리고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몸소 그와 일행을 만나주시고 오찬회까지 마련해주시였다.

높은 평가를 받은 일본인사

노사까 산조는 일본공산당 대표로서 오래동안 국제공산당에 파견되여 사업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는 중국 연안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위해 적극 투쟁한 사람이였다.

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뵙고 가르치심을 받은 그날은 주체34(1945)년 12월 21일이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일제의 100만대군과 맞서싸우신 명성높은 장군으로 높이 칭송하며 그이께 인사를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과분한 평가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시면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위하여 굴함없이 싸워온 그를 비롯한 일본인사들의 투쟁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앞으로 일본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조일량국 인민들간의 친선관계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공산당을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대중적당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그의 결심도 적극 지지해주시였다.

자기 나라로 무사히 귀국할수 있도록 해당한 조치도 취해주시고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하나하나 헤아려주시는 그이의 소탈한 인품과 다심한 인정에 끌리여 노사까 산조는 위대한 수령님앞에서 다진 맹세대로 한생을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반대하고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였을뿐 아니라 재일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는 련대성운동을 적극 벌리였다.

녀성법률가를 만나시여

주체41(1952)년 3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을 방문한 국제민주법률가협회조사단을 만나주시였다.

그가운데는 26살의 벨지끄녀성법률가도 있었다.

그가 조선에 와서 야밤에 자동차사고로 얼굴에 상처를 입은데 대하여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즉시 병원에 입원시키도록 하시고 유능한 의사를 붙여 그의 상처뿐아니라 본래 그가 가지고있던 다른 질병도 말끔히 고쳐주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 이제는 상처도 다 아물고 아무일 없다고 스스럼없이 말씀올렸다. 그러면서 그는 조선에 와서 부상당한것은 싸우는 조선인민을 조금이나마 도와나섰다는 증거로도 되고 후날 영원한 추억으로도 될것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러는 그를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도 잊지 않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헤여지기 아쉬워하는 그와 조사단성원들을 바래워주시면서 당신들이 조선전쟁이 끝난 다음 다시 조선을 방문하여주기 바란다고 정을 담아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에 대하여 그는 후날 자기의 글에서 그날에 받은 감동을 나는 영원히 잊을수 없다고, **김일성**주석의 두리에 굳게 뭉치였기에 조선인민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고 썼다.

4. 다함없는 흠모와 칭송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의 존재와 발전이 따사로운 빛과 열을 주는 태양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듯이 인류의 운명도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여 앞길을 밝혀주고 그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는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떠나서 참답게 개척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세계와 인류앞에 특출한 공헌을 하시고 인류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했던 존경과 흠모, 칭송을 받으신 위인중의 위인, 세계적인 수령이시다.

하기에 세계 진보적인류는 세월이 흘러도 위대한 수령님을 그처럼 잊지 못해하며 인류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과 정견이 다른 사람들도 누구든지 우리 수령님을 한번 만나뵈오면 그 고결한 인품에 매혹되여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고 존경하였다.》

위인에 대한 인간적매혹은 흠모를 낳는 마를줄 모르는 샘물이다.

위대한 수령님은 온 세계가 우러르는 위대한 수령이시기 전에 끝없이 따르고싶은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국제주의적의리에서도 제일이시였을뿐 아니라 온 인류를 품에 안는 인간성과 인정미에서도 제일이시였고 인품에서도 남달리 출중하신 위인중의 위인이시였다.

진보적인류가 한결같이 흠모하고 칭송하고있는것처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같이 그토록 의리깊고 인자하며 인정에 넘치는 수령, 만민의 어버이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1) 비범한 예지와 위인적풍모에 매혹되여

《숙소에 있는 책을 다 가져가겠다》

주체63(1974)년 5월 조선을 방문한 세네갈대통령은 3~4일밖에 안되는 방문기간에 낮에는 여러곳을 참관하고 밤에는 숙소의 서재에 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들을 정독하느라 시간가는줄 몰랐다.

그가 조선방문을 마치고 돌아가게 되였을 때였다. 그는 해당 일군에게 숙소의 서재에 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을 자기가 다 가지고가도록 도와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책들을 몽땅 가져가는것보다 요구하는 책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그의 요구대로 책들을 보내주도록 하시였다.

대통령은 위대한 수령님을 작별방문하는 자리에서 자기는 지금까지 주석각하의 로작들을 읽기는 하였지만 드문드문 읽다보니 거기에 담겨진 사상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그래서 돌아가서 체계적으로 읽으려고 한다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주석각하의 로작들을 가지고가서 자기만 보자는것이 아니고 자기 동료들과 자기 나라의 모든 청년들이 다 보고 공부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다.

주체사상신봉자로 된 뻬루의 인사

주체62(1973)년 9월 전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 위원장이 처음으로 조선을 방문하였다.

그는 경이적인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 조선의 현실을 목격하고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조선의 여러곳을 참관하는 과정에 그는 모든 성과들의 밑바탕에는 위대한 주체사상이 놓여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는 주체사상을 체득하기 위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들을 탐독하였다. 시간이 갈수록 그는 주체사상이야말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고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정확한 길을 밝혀주는 인류사상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가장 위대한 사상이라는것을 절감하였다.

주체사상에 끝없이 매혹될수록 그의 가슴속에는 이 탁월한 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존경과 흠모심이 차넘쳤으며 그이를 만나뵙고싶은 심정이 강렬해졌다.

9월 15일 그의 소원은 마침내 이루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시고 따뜻이 대해주시였으며 알고싶어하는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명철한 대답을 주시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수령님은 진정 위대한 철학가, 위대한 사상가이시며 고매한 인품을 지니신 위대한 인간, 만사람의 어버이이시라는 것을 심장으로 느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심을 지니였기에 그는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는 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쳤다.

평생의 소망을 성취하는 행운을 누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70(1981)년 2월 조선을 방문한 당시 프랑스사회당 당수 미떼랑과 그 일행을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뵈옵고 그이의 위인적풍모에 반한 미떼랑은 수행원들에게 **김일성**주석각하이시야말로 20세기의 위인이시라고, 자기는 주석각하의 비범한 통찰력과 비상한 분석력, 천리혜안의 예지와 풍부하면서도 기지있는 언변에 완전히 매혹되였다고, 나는 조선에 와서 평생의 소망을 성취하는 행운을 누렸다고 말하였다.

조선방문을 마치고 돌아간 후 미떼랑은 프랑스력사상 처음으로 좌익의 《거두》로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였다.

후날 서방7개국수뇌자회의에 참가하였을 때 그는 회의참가자들에게 **김일성**주석은 위대한 국가원수이시였다고, 그이께서는 제2차 세계대전후부터 오늘까지 활동한 위인들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위인이시였다고, 서방7개국수뇌자들가운데서 유일하게 자기만이 **김일성**주석을 만나뵙는 행운을 누리였다고, 자기는 이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자기의 심정을 피력하였다.

경탄을 자아낸 천재적위인의 기억력

주체73(1984)년 당시의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나라에 있는 찌또기념쎈터를 찾으시였다.

쎈터에는 커다란 곰가죽이 하나 진렬되여있었다. 해설원은 위대한 수령님께 그 곰가죽을 가리켜드리면서 찌또대통령이 보스니아―헤르쩨고비나에서 잡은 곰의 가죽이며 세계축전에서 금메달을 받았던것이라고 말씀드리였다.

그의 해설이 끝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이미 찌또대통령이 우리 나라에 왔을 때 그에게서 곰사냥경기에서 1등상을 받은데 대하여 들었다고 하시며 그때 그는 493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교시하시였다.

순간 장내는 감격의 파도로 출렁이였다. 사냥경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해전에 위대한 수령님과 찌또대통령이 나눈 많은 이야기들중의 한 토막에 불과한것이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날의 순간순간을 너무도 정확히 구체적으로 기억하고계시였던것이다.

정말이지 퍽 오래전에 피뜩 들어두셨던 수자까지도 정확히 기억해내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면서 해설원은 물론 수행일군들과 쎈터관리성원들모두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그이의 천재적이며 비상한 기억력에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24 년전의 일을 어제일처럼

주체82(1993)년 2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을 방문한 도미니까 통일된좌익운동 총비서를 만나주시였다.

총비서는 전 도미니까대통령이 위대한 수령님께 올리는 따뜻한 인사를 전해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잠시 기억을 더듬으시다가 옆에 앉아있는 일군에게 전 도미니까대통령이라고 하면 24년전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 자신께서 어느 초대소에 나가 만나주고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이 아닌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이 그렇다고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일이 생각난다고, 그때 자신께서는 그와 일련의 국제정치문제들을 놓고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그는 아주 열정적이고 다감한 사람이였다고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총비서는 24년전의 일을 어제일처럼 이야기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비상한 기억력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비상한 기억력으로

어느해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국을 방문하시였을 때의 일이다.

이날 연회에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서기에게 중국측 일군들중에서 한사람이 퍽 낯익다고 교시하시였다.

총서기는 위대한 수령님께 그는 중국공산당 판공청부주임이라고, 그는 얼마전에 당일군대표단 단장으로 조선을 방문하였다고, 아마 그때 만나보셨을것이라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그때 자신께서는 시간이 없어 중국당대표단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런데 저 사람은 어디선가 꼭 본 생각이 난다고 회억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였다.

잠시 생각을 떠올리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속기원이였다고 하시며 몸가까이 그를 불러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시며 오래간만에 다시 만나보게 된다고 못내 반가와하시였다.

총서기는 물론 그자신도 너무나 뜻밖이여서 어리둥절해하였다.

총서기는 위대한 수령님께 그에게는 속기원을 한 경력이 없는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모택동주석과 담화할 때 속기원으로 참가한적이 있지 않는가고 물으시여서야 그는 1960년대초 주석동지께서 중국에 오시여 모주석과 회담하실 때 속기원으로 참가하였다고 그때의 일을 가까스로 더듬어내여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의 년도를 바로잡아주시였다.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총서기에게 그때 모택동주석과 회담할 때 이 동무가 속기원으로 참가하여 회담장한쪽에 앉아있는것을 보았다고, 류수같은 세월이라더니 그때는 속기원을 하던 사람이 이렇게 간부로 자랐다고 감회깊이 교시하시였다.

쏘련공산당 총비서의 고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쏘련공산당 총비서사이에 단독회담이 진행된 어느해 12월에 있은 일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 회담이 결속단계에 이르렀을 때 외교관례에 없었던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쏘련공산당 총비서가 량손으로 책상을 짚고 일어나 위대한 수령님의 앞에 놓인 자그마한 수첩을 바라보는것이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 신기한 수첩속에 무엇이 있기에 면담발언요지도 없이 그 수첩만 놓고 각 방면의 문제들에 대하여 그리도 거침없이 말씀하시는가고 물음을 드렸다. 잠시후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여주시는 수첩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삼각표식을 하고 몇글자씩 적은것이 서너줄 되나마나한 자그마한 수첩,

이삼백페지가 실히 되는 두툼한 발언요지를 준비한 그로서는 도저히 리해할수 없는 문제였다.

그날 저녁 연회장에서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 **김일성**동지이시야말로 다재다능하신 절세의 위인이시라고, 자기는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 수반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당신같으신 만능의 위인은 처음 본다고 고백하였다.

《실농군》이라고 불러주어 고맙다고 하시며

주체64(1975)년 6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벌가리아를 방문하시였을 때였다.

어느 한 농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 이 나라 당지도자는 이 농장이 밀농사를 제일 잘한다고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사가 잘되였다고 하시며 그에게 씨붙임을 잘했다고, 정보당 종자를 얼마나 심었는가고 물으시였다.

그이의 뜻밖의 물으심에 그는 자기는 농사에까지 구체적으로 관심할 형편이 못되여서 농업담당 일군에게 물어보겠다고 말씀드리며 그 일군을 불렀다. 그런데 그조차 잘 모르겠다는듯 어깨를 으쓱 올리며 딱한 표정을 짓더니 수행원들중 한 사람을 불렀다. 그는 농장의 기사장이였다. 사연을 알게 된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들고 그것을 보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그 수자를 말씀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밀이삭을 뜯어 손바닥에 놓고 껍질을 벗겨보시며 그에게 정보당 질소비료와 린비료는 얼마나 주는가고 또다시 물으시였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허리를 굽히시고 손수 흙을 만져보시며 토질이 아주 좋다고, 정보당 질소비료를 80kg 주어서 밀알이 이만큼 여물면 토질이 매우 좋다는것을 의미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이때 당지도자가 위대한 수령님께 이상기후의 영향때문에 농사를 마음놓고 지을수 없다고 걱정어린 어조로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극지방의 얼음산면적이 넓어진탓이라고 하시면서 조선에서 이상기후의 영향을 막기 위해 강냉이영양단지와 벼랭상모를 100% 한데 대하여서와 적기적작, 적지적작의 원칙을 지키고 랭습지를 개량하여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게 한데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시였다.

그 나라의 당지도자는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해하며 위대한 수령님께 국가정사를 보시면서 농사법은 언제 그렇게 터득하셨는가고, 꼭 실농군 같으시다고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실농군》이라고 불러주어 고맙다고, 제철소에 가면 용해공이 되고 바다에 가면 어로공이 되고 농촌에 가면 실농군이 되여야 나라의 정사를 제대로 펼수 있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탄복한 대통령

주체72(1983)년 12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을 방문한 가이아나대통령일행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오찬회석상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에서 치료를 받은 대통령의 부인에게 건강상태가 어떤가에 대하여 물어주시였다.

조선의사들로부터 치료를 받은 후 건강이 퍽 좋아졌다는 그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고려치료방법의 우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사람들은 대다수가 고려의학의 우월성을 믿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고려치료를 많이 받아왔는데 고려의사들은 수술하는 방법으로 병을 고치는것이 아니라 주로 보약을 많이 써서 사람들의 원기를 돋구어주는 방법으로 병을 치료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고려치료에서 쓰이는 여러가지 약초들과 약재들에 대하여 설명해주신 그이께서는 현대의학적방법으로 병을 정확히 진단한 다음에는 고려의학적방법으로 치료를 받는것이 좋다고 교시하시였다.

대통령은 오찬이 끝난 후 탄복을 금할수 없다고, 주석각하께서는 정치, 경제, 군사는 물론 의학에도 완전히 도통하신 희세의 천재이시라고 말하였다.

가금학박사의 탄복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6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느 한 나라의 가금학박사를 만나주시였다.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 온 그는 국제적으로 가금업분야에서 인정을 받고있는 권위있는 학자였다. 그가 평양에 온것은 조선에 건설된 수많은 닭공장들의 운영상태를 직접 눈으로 보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였다.

하기에 그는 하나부터 열까지 따지고 캐고 밑바닥까지 파고들면서 닭공장들을 돌아보았다.

참관일정이 끝났을 때였다. 그는 숙소에 찾아온 조선의 일군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몇해전까지만 해도 가금업의 토대가 없었던 귀국이였는데 예상외로 많은 닭공장들을 훌륭히 건설하였을뿐 아니라 관리운영사업도 잘돼가고있다고 하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말해줄것을 간청하였다.

일군은 그 비결이 바로 가금업발전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진두에서 조직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있다고 긍지높이 대답하였다.

그러자 가금학박사는 닭공장들을 돌아보는 과정에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지지도하시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수령님의 현지지도내용들을 좀 알수 없겠는가고 하였다.

일군이 선뜻 청을 들어주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심중히 연구하는것이였다.

다음날 일군이 숙소로 찾아가자 가금학박사는 무작정 그의 손을 덥석 부여잡으면서 조선에서 처음으로 창조된 주체의 가금학을 자기도 배워야 하겠다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고 그이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고싶은 것이 자기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말하는것이였다.

일군으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그의 요청을 쾌히 수락해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가금학박사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경건히 우러르며 조선의 가금업은 철두철미 주체적인것만큼 아직 세계가 모르는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것이 많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가르치심을 받고싶다고 간절히 말씀올렸다.

절절한 청인지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양하지 않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빈약하였던 조선의 가금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밑천을 마련해놓기까지의 력사를 들려주시였다.

그는 수첩을 펼쳐놓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자자구구 받아적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랜 시간에 걸쳐 가르치심을 주시고났을 때 가금학박사의 부피두터운 수첩은 주체적인 가금학건설의 리론과 실천적경험이 집대성된 하나의 교과서와도 같았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나서 그는 박사란 최고의 학위이라고, 그러나 박사들의 지식이란것도 어느 한가지 전문분야의 테두리안에 제한되여있다고,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닭은 물론 오리와 게사니, 칠면조와 메추리 등에 대해서도 다 환히 꿰들고계시며 가금육종, 배합먹이, 수의방역사업, 생산물의 가공처리, 가금공장건설과 관리운영, 기계설비 등 전반적범위의 지식을 최고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소유하고계신다고, **김일성**동지는 참으로 탁월한 수령이시라고 격찬하였다.

2) 위인적풍모에 매혹되여

초대 조선주재 쏘련특명전권대사의 격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끝없이 흠모한 외국인들중에는 초대 조선주재 쏘련특명전권대사였던 스띠꼬브도 있었다.

해방직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쓰딸린과 비공식적으로 만나셨을 때였다.

회담이 끝난 후 위대한 수령님과 만찬을 함께 하는 석상에서 쓰딸린은 **김일성**동지는 34살밖에 안되지만 모든 문제에 대한 조예가 깊으시다고, 당신은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판단하신다고 감탄해마지 않았다.

조선의 력사적환경이 자신에게 많은것을 가르쳐주었다고 겸허하게 말씀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스띠꼬브는 **김일성**동지이시야말로 대성인이시라는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였으며 그후 조선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 전화로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자리에서 일어서군 하였고 그이를 만나뵈워야 할 일이 있을 때에는 옷매무시를 살핀 다음에야 수령님께서 계시는 방으로 가군 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스띠꼬브는 그처럼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미래를 락관하시며 전체 인민을 승리의 길로 령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천출위인상에 더욱더 매혹되였다.

하기에 스띠꼬브는 조선의 일군들에게 **김일성**동지께서 계시기에 조선전쟁은 승리한 전쟁이라고, 자기에게는 지금 축포가 오르는 전승광장에서 영웅들의 열병대오를 사열하시는 **김일성**동지의 거룩한 모습이 보이는것 같다고 격정을 토로하였던것이다.

반둥회의를 경축하는 마당에서

주체54(1965)년 4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도네시아의 수도 쟈까르따에서 진행된 반둥회의 10돐 경축행사에 참석하시였을 때에 있은 일이다.

행사가 진행되던 4월 17일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대통령은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을 위한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고 연회장에서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주악하게 하였다.

노래를 들으며 주은래총리는 수카르노대통령에게 저 노래가 바로 세계적위인이신 **김일성**동지에 대한 노래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수카르노대통령은 웃으며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자기도 잘 알고 전체 인도네시아인민이 부를줄 아는 노래라고 이야기하고나서 위대한 수령님께 존경하는 **김일성**수상각하는 우리의 영광이시라고, 당신께서 세계적으로 유명하신것처럼 이 노래도 세계적인 명곡이라고 말씀드리였다.

그 말에 캄보쟈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 역시 자기도 오래전부터 존경하는 **김일성**수상각하에 대한 노래를 알고있었다고 하면서 수카르노대통령과 함께 주악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춤까지 추었다.

온 세계를 경탄시킨 유고슬라비아방문

1980년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을 방문하시였을 때였다.

당시 유고슬라비아를 40명이 넘는 국가 및 정부수반들과 200여개의 대표단과 대표들, 각국의 정계, 사회계인사들을 비롯한 수많은 인물들도 방문하였다.

하지만 온 세계의 이목은 위대한 수령님께만 쏠려있었다.

프랑스신문 《몽드》는 《쁠럭불가담운동의 견결한 옹호자이신 **김일성**주석의 참석은 특별히 주목된다.》고 하였고 미국 《뉴욕 타임스》는 유고슬라비

아에 도착하는 국가수반들에 대한 보도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제일 첫자리에 모시였다.

유고슬라비아의 지도자들은 동서방의 지도자들이 수많이 모여 진행하는 행사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제일 중심에 모시였고 다른 나라 국가수반들은 모두 계단에 서있도록 하면서도 수령님께서만은 맨 앞줄 중심에 놓여있는 걸상에 앉아계시도록 하였다.

이 사실에 접하고 일본의 한 기자는 **김일성**주석의 유고슬라비아방문은 전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키고있다고, 정말 경이적인 큰 사변이라고, **김일성**주석은 위대한분이시며 아시아의 자랑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기 나라 방문을 체험하면서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집행비서는 자기는 많은 국가수반들이 존경하는 주석동지를 만나뵙기 위하여 줄을 서는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큰 나라 수반들이 주석동지의 가까이에 있었지만 여러 나라 수반들은 그들한테는 관심이 없이 모두 주석동지께 인사를 드리려고 찾아갔는데 자기는 그 화폭을 통해 **김일성**주석동지이시야말로 만사람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고계시는 위대한 지도자이시라는것을 깊이 느끼게 되였다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또고의 하늘가에 울려퍼진 《김일성장군의 노래》

주체63(1974)년 1월 어느날 비행기편으로 고향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 려행의 길에 올랐던 또고대통령이 제국주의자들의 간악한 음모책동에 의하여 800m 상공에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다행히 대통령만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이 사건을 통하여 대통령은 제국주의자들의 야만성과 잔인성에 대해 더욱 뼈저리게 느끼였다. 허나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간섭으로부터 갓 독립된 자기 나라를 어떻게 지키고 이끌어가야 할지 몰라 가슴만 앓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또고대통령의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리시여 그를 평양으로 초청하시였다.

그해 9월 또고대통령은 당과 정부의 고위간부들과 함께 조선을 국가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통령을 따뜻이 맞이하시고 그에게 힘과 용기, 신심을 안겨주시기 위해 크나큰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보고싶어하고 알고싶어하는 모든것을 다 보여주시고 일일이 가르쳐주시였으며 요구하는것도 어떤것이든지 죄다 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조선에서의 사회주의건설경험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해주시면서 자기의 자원과 기술, 자기의 민족간부에 의하여 운영되는 자립경제를 건설하지 않고서는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압력을 물리칠수 없고 나아가서는 정치적자주권도 수호할수 없다고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대통령의 조선방문기간 달리는 승용차안에서도, 극장의 휴계실과 회담장소, 연회장에서도 그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시며 알고싶어하는 문제라면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청소한 또고를 자주의 길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애쓰고있는 대통령의 패기와 열정을 높이 평가하시여 물심량면의 끊임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였다.

또고의 지도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같은 은덕에 고마움을 금치 못하면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흠모의 정을 담아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자기 나라 인민들속에 널리 보급하였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또고의 어디에서나 높이 울리였다. 또고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관개공사착공식장에서도,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발전도상나라들의 과업에 관한 과학토론회장에서도 조선의 혁명송가를 높이 부르는 사람들의 열정적인 모습들을 볼수 있었다.

온 나라 대가정의 아버지

주체60(1971)년말 일본기자 다까기 다께오가 조선을 방문하였다.

수십년의 기자생활을 한 전형적인 탐방기자인 다까기 다께오는 남의 눈길이 미치지 않고 남이 손을 대지 않는 문제를 끄집어내여 세상에 파문을 던지기를 잘함으로써 당시 독자대중의 인기를 모으고있었다.

그는 세계정치가들중에서 만고의 영웅으로, 절세의 위인으로 떠받들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직접 뵙고싶은 간절한 소원과 세계에 급속히 파급되는 새로운 사상조류인 주체사상이 조선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개척되였으며 그 핵은 무엇이고 선행한 사상리론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몹시 알고싶은 마음을 안고 조선에 오게 되였다.

다까기는 12월 31일 영광스럽게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평양학생소년들의 설맞이모임에 참가하게 되였다.

만면에 태양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궁전에 들어서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옷섶을 부여잡고 아이들이 저저마다 《아버지원수님!》 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 광경을 본 다까기는 이상할 정도로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끼였다.

아버지!

네남매를 두고있는 그가 아버지라는 그 정다운 부름을 왜 모르랴만 수령을 두고 부르는 호칭으로서는 너무도 생소하고 놀라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감동에 젖어있는 다까기를 몸가까이 불러주시고 그의 안부도 물어주시며 그와 격식없는 대화를 나누시였다.

위인의 소탈한 인품이 그의 온몸의 긴장을 순간에 풀어주었다.

다까기는 후에 이날의 감동적인 사실을 자기의 회상록에 자기는 **김일성**주석의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과 세심하고도 따사로운 배려가 그 얼마나 뜨겁게 베풀어지고있는가를 가슴뜨겁게 느꼈다고, 그리고 주석께서 솔직하시고 아무런 격식도 차리지 않으시면서 소박한 인간성그대로 인민들과 접촉하시는 모습이 대단히 아름답게 보였다고,

과연 아버지이시라고. 어린이들이 그이를 아버지원수님이라고 하는데 어린이들만이 아니라고, 어린이들을 교양하는 선생들도 그이를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딸의 관계, 그것은 **김일성**주석과 이 나라 인민의 관계이라고, 주석께서는 인민을 사랑하시며 인민은 그이를 받드는 가장 뜨겁고 동지적인 애정의 결합인것이라고 썼다.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의 감탄

조국해방을 앞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쓰딸린의 위임을 받고 온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을 만나시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 그는 해방후 조선인민의 건국투쟁에 어떤 형태의 지원을 주었으면 좋겠는가고 문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도와준다면 물론 고맙겠지만 우리는 될수록 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일떠세우려고 한다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는것이 장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한다고, 우리 나라에서는 력대적으로 사대주의가 망국의 근원으로 존재해왔다고, 새 조국을 건설할 때에는 사대주의로 인한 피페가 절대로 없게 하자는것이 우리의 결심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기대하는것은 우리 나라에 대한 형제나라의 정치적 지지이라고 대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에 그는 크게 탄복하였다. 그는 얼마전에 만났던 동유럽의 한 나라 사람을 생각하였다. 그는 만나자바람으로 자기 나라는 본래부터 경제적으로 락후한데다가 전쟁피해가 막심해서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쏘련이 큰집이 된셈치고 도와주어야겠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 얼마나 대조적인가고, 이것이 바로 동방과 서방의 차이, 해뜨는 나라와 해지는 나라의 차이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감동깊이 말하였다.

관례를 깨뜨린 대통령부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언제인가 알제리를 방문하시였을 때 있은 일이다.

이 나라 인민들은 알제리를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열렬히 환대해드렸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을 환영하는 행사에는 그 나라 대통령의 부인을 비롯하여 많은 녀성들이 참가하였는데 머리에 쓰고 다니던 수건을 벗은것이였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원래 이슬람교국가인 알제리에서는 녀성들이 행사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여있었으며 녀성들이 《부르노스》를 입고다니는것은 전통적인 민족적풍습으로 내려오고있었다.

대통령의 부인도 이런 관례에 의하여 연회에 참가하거나 비행장에 나가는것과 같은 행사에 참가하지 않게 되여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부인은 그런 풍습에서 벗어나 비행장에도 나와 위대한 수령님을 맞이하였고 그이를 환영하는 연회에도 참가하였던것이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존경심이 낳은 진정어린 매혹의 분출이였다.

회담도중에 마련된 기도시간

주체71(1982)년 10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을 방문하고있는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 국가수반을 만나주시고 그와 여러 시간에 걸쳐 회담을 진행하시였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와 회담을 진행하시면서 자주 탁상우에 놓여있는 시계에 눈길을 돌리시는것이였다. 어느덧 시계바늘이 오후 6시를 가리켰다.

바로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기도시간이 되지 않았는가고 물으시였다.

순간 그는 경탄에 찬 눈길로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그에게 기도를 드릴 방을 따로 준비해놓았으니 어서 그 방에 가보라고 친근하게 교시하시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몸가짐을 하고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들의 풍습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존중해주시는 각하께 최대의 감사를 드린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올렸다.

이렇게 되여 회담도중에 기도시간이 마련되게 되였다.

후날 그는 자기의 조선방문인상에 대하여 묻는 기자들에게 **김일성**주석께서 특별히 꾸려주신 방에서 자기는 기도를 드렸다고, 그 시간은 불과 1분이였다고,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자기는 수백만년을 헤아리는 두툼한 위인사를 펼쳐보았다고, 20세기가 낳은 출중한 위인이 조선에 계신다고, 그분은 바로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이시라고 말하였다.

눈물을 흘린 대표단성원들

주체42(1953)년 1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사령부에서 몽골에서 온 한 대표단을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표단과 담화를 나누신 후 오찬을 마련하시고 어려운 전쟁시기이므로 차린 음식도 소박하니 우리의 성의로 알고 많이 들라고 하시며 따뜻이 권하시였다.

말이 오찬이지 소박한 점심상이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인품과 검박한 생활에 깊이 감동되여 선뜻 수저를 들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때 대표단 부단장이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것이였다. 단장을 비롯한 대표단성원들은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뜻밖의 일에 어찌할바를 몰라하였다. 그래서 웬일인가 하여 최고사령부 성원들이 밖에 나가보니 부단장이 언덕에 있는 나무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고있었다.

그는 자기들은 몽골을 떠나올 때 조선의 **김일성**장군님은 세계제국주의 우두머리를 때려부시는 위대한 장군이시라고 칭송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처럼 위대한분이여서 조선에 가서 장군님을 만나뵙기 어려울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금수를 놓은 위엄있는 장군복을 입으시고 으리으리한 작전실에서 집무를 보실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그이께서 처마낮은 농촌집에서 그것도 방안이 너무 좁아 군용지도도 몇겹으로 접어 걸어야 하는 작전실에서 색바랜 닫긴옷을 입으시고 이 거창한 세계대전과도 같은 전쟁을 령도하실줄은 정말 몰랐다고 하면서 격정을 누를길 없어 몹시 실례되는 일이라는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밖으로 나왔다고 말하였다.

넓은 도량에 매혹되여

전 일본국회 참의원 의원 오다까 요시꼬가 처음 조선을 방문한것은 주체64(1975)년 7월이였다.

그때 그는 일본자민당유지의원단의 한 성원으로 조선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뵙게 되였다.

그러나 그는 기쁨과 함께 불미스러운 과거사로 하여 누구에게 말할수 없는 괴로움이 겹쌓여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제를 반대하는 항일혁명투쟁을 조직전개하시던 시기 그는 만주영화협회에서 리향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수로서 만주와 조선의 일본군주둔지들을 돌아다니며 노래를 불러 침략자들의 열기를 돋구어주었던것이다. 이러한 그가 일제가 그렇게도 무서워 벌벌 떨던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뵙게 되였으니 죄스럽고 송구한 마음으로 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하였다.

이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의 이름을 몸소 불러주시였다. 그는 머리도 들지 못한채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위대한 수령님께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시고 인생에는 노래도 있고 춤도 있다고 하시면서 그의 과거를 백지화해주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속속들이 꿰뚫어보시고 얼어붙었던 가슴을 대번에 녹여주시는 위대하고 자애로운분이시였다.

오다까 요시끄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던 때를 회상하여 쓴 글에서 자기는 아직까지 주석과 같이 그처럼 넓은 도량과 고결한 풍모를 지니신 령도자를 만나보지도 못하였거니와 그러한 령도자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적도 없다고 하면서 수령님이시야말로 세계가 우러러따르는 천출위인이시라고 격찬하였다.

위인의 인품에 매혹되여

일본의 전 중의원 의원이 1970년 8월 일본사회당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조선을 방문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담에서 일본사회당대표단 성원들에게 세계정세와 조선의 사회주의건설정형 등 광범한 문제를 하나하나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식사를 같이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하자고 하시며 대표단성원들을 연회장으로 이끄시였다. 연회장에서 담화가 진행되고있을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에게 재일조선공민의 민족적권리옹호문제에 대하여 물으시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설명해드리려고 하였다. 그러는 그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거리가 멀어 말하기 힘들테니 자신쪽으로 오라고 하시며 손짓으로 그를 부르시였다.

그때 그는 자기는 목소리가 커서 여기서도 일없다고 대답하면서 그 자리에 선채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야기는 가까이 마주앉아 해야 통하기 쉬운 법이라고, 이쪽으로 자리를 옮기라고 거듭 이르시였다.

관계부문 일군이 그앞에 있던 음식그릇이며 접시들을 모두 위대한 수령님가까이로 옮겨갔다.

그는 **김일성**주석께 홀딱 반하고말았다고 하면서 이때의 심정을 많은 글들에서 표현하였다.

《그분을 잘 받들어달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중국동북구국군 총사령이였던 왕덕림을 항일성전에 다시 뛰여들게 하신 이야기는 조중인민의 항일혁명전쟁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다.

당시 중국의 일부 공산주의자들은 적들의 공세가 심해지자 쏘련경내로 망명한 왕덕림이 의리가 없고 상종할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를 배척하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한때 신심을 잃고 실책을 범하긴 했지만 그의 량심과 애국의기는 변할수 없다고, 항일대오에 한사람이라도 더 뭉치면 좋은 일이지 나쁠것은 없다고 하시면서 사람을 빨리 보내여 그에게 동북의 항전소식도 전하고 그가 귀국하여 항일구국의 길에 다시 돌아서도록 진심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동료들도 그에게 등을 돌려대고있는 때에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의 교시를 전달받은 왕덕림은 격동되여 다시금 항일의 의지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부하들과 처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일성**사령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항일을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후 왕덕림은 중국관내로 들어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중항일련합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였다. 하지만 그는 그처럼 학수고대하던 위대한 수령님과의 상봉의 날을 보지 못하였다. 운명의 시각 그는 병상을 지키고있는 측근들에게 조선인민혁명군이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준 전투소식이 실린 신문 《대동일보》를 보여주면서 **김일성**사령께서 자기를 구

국군형제들이 있는 동북전장에 불러주시였는데 자기는 가지 못한다고, 그러나 그대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꼭 가야 한다고, 자기를 대신하여 부디 그분을 잘 받들어달라는 마지막말을 남기였다.

조선인민은 일본인민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직후 새 조선건설의 그 바쁘신 속에서 만나주신 일본의 인사들중에는 일조농업기술교류협회 회장이였던 가네가쯔 노보루도 있다.

일제가 패망한 뒤 조선에는 많은 일본인들이 남아있었다. 일본에서는 이들의 귀환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사회단체들과 인사들의 운동이 진행되고있었다. 가네가쯔는 이 귀환운동에 참가하면서 점차 조선에 가서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자기의 소청을 말씀드릴 용단까지 내리게 되였다. 그가 이러한 용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마음속고민이 컸다.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씻을수 없는 원한만을 남긴 과거 일제의 죄행에 대하여 잘 알고있는 그였기때문이다. 조선에서 자기의 소청이 이루어지겠는지, 더우기 백두산의 호랑이로 명성을 떨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대해주실가 하는 위구심이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간난신고하여 조선에 온 가네가쯔는 큰 충격을 받았다. 해방직후 조선에서 일본인들에게 식량을 공급해주고있는 사실을 목격하였기때문이다.

그가 위대한 수령님을 직접 만나뵈온 그날은 주체35(1946)년 6월 3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렵고 복잡한 시기에 일본에서 먼길을 오느라고 고생이 많았다고 그를 따뜻이 위로해주시며 그의 소청을 마지막까지 다 들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가 안고있는 위구심도 풀어주시며 조선인민은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악독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한 일본제국주의통치배를 반대하지 결코 일본인민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인민은 재일동포들의 귀국을 실현하지 못한 불행을 안고있는것만

큼 북반부지역에 남아있는 일본인들의 고통을 리해하고있으며 그들의 귀국실현을 도와주려고 한다는데 대하여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가네가쯔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은 그후 수많은 일본인들의 귀환이 시작되고 자기가 일본으로 무사히 귀국할수 있도록 온갖 조치가 취해지는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무한대한 포용력, 고매한 풍모와 높은 덕망에 매혹된 가네가쯔는 그이를 만나뵈운 후부터 사상과 정견을 초월하여 조선인민의 투쟁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으로 되였으며 일조농업기술교류협회 회장으로 일하면서 조일관계개선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였다.

《조선의 높이》

주체66(1977)년 9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녀성으로서 처음으로 조선을 방문한 전 마다가스까르혁명전위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을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각별한 관심과 보살피심에 의하여 자기 나라 대통령의 자녀들은 물론 자기 자녀들까지 데리고 평양길에 오른 그의 마음은 격정으로 설레이였으나 한켠으로는 낯설고 물설은 이국땅에 어린것들을 데리고가는것이 어지간히 걱정스럽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의 걱정은 공연한것이였다.

대양건너 먼길을 려행하여 조선에 찾아오는 그의 일행이 념려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특별비행기와 해당 부문의 일군들이 당시 쏘련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그들을 기다리고있었던것이다.

뜻밖의 사실에 접한 그의 충격은 참으로 컸다.

조선에 체류하는 기간 그와 그의 일행은 아무런 불편도 없이 즐겁게 지낼수 있었다.

그러던 10월 어느날 그는 일행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보내주신 새옷을 입고 그이의 저택에서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나라일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그와 그의 일행을 몸가까이 불러주시여 오찬도 마련해주시고 기념사진까지 함께 찍어주시였다.

조선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때로부터 6년후인 주체72(1983)년 7월 중순 마다가스까르혁명전위대표단을 이끌고 두번째로 조선을 방문한 그는 또다시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표단성원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그들의 건강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후날 그는 《조선의 높이》라는 글에서 조선의 높이! 그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인간사랑의 정치가 낳은 유일무이한 높이로서 그 무엇으로써도 잴수 없고 깨뜨릴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힘의 높이이다라고 썼다.

뜨거운 인정미에 매혹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59(1970)년 6월 23일 조선을 방문한 일본의 어느 한 출판사 사장을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허물없이 담배를 권하시며 체류기간 불편한 점은 없었는가고 다정히 물으시고 래일 나호드까를 거쳐 귀국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체류일정을 한주일간 더 연장하여 휴식도 충분히 하고 모스크바를 거쳐 비행기로 귀국하라고 교시하시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장일행을 만나주는 사업이 왜 미루어졌는가에 대하여 친절하고 성의있게 이야기해주시였다.

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사실 그는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공화국을 방문하고있다는것과 세계 각국의 당과 정부의 지도자들

이 편이어 조선을 방문하고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얼마나 바쁘신 나날을 보내고계시는가에 대해서도 결코 생각 못하고있은바가 아니였다.

그러나 량해를 구하시듯 차근차근 설명해주시는 그이의 고매한 풍모에 사장은 그만 눈시울이 젖어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설득력있게 이야기해주시였다. 아무런 허물도 없이 마음을 터놓고 정담아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호방한 말씀은 참으로 인민적이고 매력적이였다.

그는 담화전기간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풍부한 지성과 고매한 인민적풍모, 전략전술가로서의 천재적예지를 지니신 희세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라는것을 페부로 절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운 시간은 비록 길지 않았지만 사장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력과 넘쳐흐르는 뜨거운 인정미에 대하여 탄복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후날 이에 대하여 인민적이며 친근하시며 인간적견인력이 풍부하신 **김일성**주석의 움직이심의 하나하나는 자신의 가슴속깊이 아로새겨졌다고 자기의 글에 썼다.

도서 《김일성조선과 더불어 60년》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선의 전재고아들을 말아키우는 사업에서 누구보다 헌신적이였던 사람들가운데는 벌가리아의 한 녀성도 있다.

어느해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벌가리아를 방문하시였을때 그 녀성과 그의 가족을 친히 만나주시고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며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선물까지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와 그의 가족은 조선을 위하여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라고, 우리들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살고있지만 사실상 한집안식구와

다름없다고 하시면서 조선을 방문할수 있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추억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것으로 가슴속에 자리잡고있은 그였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도서 《**김일성**조선과 더불어 60년》을 세상에 내놓았다.

책에서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이 세상 그 누구도 견줄수 없는 고매한 덕망과 넓은 도량,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신 대성인이시고 만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련이어 써낸 위인칭송의 글

전 서부도이췰란드의 루이저 린저는 필치가 예리하고 자존심이 강한것으로 하여 서방세계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녀류작가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기를 탐독하면서 그이의 위인적풍모에 끝없이 매혹되여 평양으로 왔다.

주체69(1980)년 5월 현지지도의 바쁘신 속에서도 시간을 내시여 그를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가르치심도 주시고 그를 위하여 오찬도 마련해주시였다. 그의 가슴아픈 인생사도 들어주신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그를 만나는것을 같은 사상과 지향을 가진 전우들의 상봉으로 귀중히 여기며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뜻깊게 교시하시였다.

그후 그는 태양의 인력을 지니신 수령님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글을 써내는것을 시대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 작가의 량심으로 간주하고《조선방문기》의 원고를 한달도 못되는 기간에 집필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경모심을 안고 위인칭송의 글들을 련이어 써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마다 그가 조선을 방문하도록 특혜도 베풀어주시였으며 여러차례나 그를 만나주시고 뜨거운 사랑을 거듭 안겨주시였다.

1982년 조선을 세번째로 방문한 그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조선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더욱더 절감하게 되였다.

조선방문을 마치고 떠나기 전날 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을 다시금 읽으면서 그이에 대한 흠모의 정을 더욱 금치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그 로작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표해주실것을 간절히 소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소망을 헤아리시여 친필을 남겨주시였다.

문필로 인생의 봄을 맞이했고 문필로 황혼기도 맞이한 그는 여생을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도서를 집필하는데 바치였다.

열화같은 경모심의 분출

인디아의 저명한 정치학박사이며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서기장이였던 고빈드 나라인 스리바스타바는 부인과 함께 주체70(1981)년 6월과 7월 조선을 방문하였다.

그는 방문과정에 받은 흥분을 누르지 못하고 서둘러 조선을 떠나려고 하였다. 빨리 돌아가서 일을 해야 하겠다는것이였다.

그런데 갑자기 열이 오르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몸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조선의 의료일군들이 입원치료를 받을것을 권고하였지만 그는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조국으로 떠났다. 모스크바주재 조선대사관으로 왔을 때 그의 병세는 몹시 위독하였다. 그러다가 다음날 새벽에 끝내 의식을 잃었다. 쏘련의사들은 그를 병원으로 후송한 후 지체없이 수술을 하였다.

며칠후 의식을 회복한 그는 겨우 부축을 받으며 일어나앉는 형편인데도 빨리 조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또다시 우기였다.

인디아에서 열리게 되는 주체사상국제토론회준비사업때문이였다.

그의 위급한 병상태를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에 왔던 손님이 돌아가다가 위험에 처했는데 빨리 의료진을 보내서 그를 치료하여줄데 대한 간곡한 교시를 주시였다.

안해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주신 고마운 사랑에 대하여 전해들은 그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인간중심의 철학사상을 자기는 체험을 통하여 똑똑히 파악하였다고,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준 이 위대한 사상을 지켜 자기는 한생을 다 바쳐 싸울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조국으로 돌아갔다.

사랑의 불사약을 받아안은 그는 주체사상국제토론회준비사업의 크고작은 일들을 도맡아안고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뛰여다니였다.

그와 같은 주체사상신봉자들의 불타는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주체71(1982)년 4월 위대한 수령님 탄생 70돐을 계기로 인디아의 뉴델리에서는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주체사상국제토론회에서 그는 주체사상은 인간을 옹호하고 인간에게 모든 혜택을 베푸는 인간중심의 위대한 사상이라고, 때문에 그 사상은 누구나 받아들일수 있고 누구나 숭배할수 있으며 누구에게나 필요한 인류공동의 위대한 사상이라고 웨쳤다.

이것은 자주의 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사상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경모심의 분출이기도 하였다.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한 당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중국의 주은래총리사이의 마지막상봉은 주체64(1975)년 4월 베이징의 정부병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미전부터 주은래동지는 중병을 앓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만사를 뒤로 미루시고 병문안을 하실 결심을 하시였다. 그런데 주은래동지의 병상태가 위독하여 만나

보실수 없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은래총리와의 상봉의 시각을 안타까이 기다리시였다.

마침내 주은래동지의 병이 좀 차도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원천리하고 길을 떠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주은래총리는 큰 수술을 받고난 뒤여서 운신을 하기 힘들었지만 의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는 옷도 갈아입고 퉁퉁 부은 발을 천신에 끼면서까지 외교관례에 어긋나지 않게 갖출것은 다 갖추고 위대한 수령님을 정중히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병고에 시달려 몰라보게 상한 주은래총리를 보시는 순간 눈앞이 흐려지시여 그를 부둥켜안으신채 아무 말씀도 못하시였다. 주은래총리도 위대한 수령님을 붙안고 격정에 겨워 미처 말문을 떼지 못하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은래총리와 혁명동지의 정을 주고받으시며 오랜 시간 뜻깊은 담화를 하시였다.

주은래총리는 주석동지를 다시는 만나보지 못할줄 알았는데 이처럼 찾아주시여 대단히 감사하다고, 일부러 시간을 내시여 먼길을 오신 주석동지께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목메여 말하였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작별의 시각이 왔다. 주은래총리는 억이 막힌 어조로 앞으로 주석동지를 다시 만나지 못할것 같다고 외우며 위대한 수령님의 손을 꼭 부여잡고 그동안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어려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김일성**동지의 원칙적인 립장과 옳바른 가르치심이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였다고, 세계혁명문제는 앞으로도 세계정치의 공인된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의 지도를 받아야만 옳게 해결될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자기는 **김일성**동지께서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세계혁명을 이끌어주실것을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국가수반이 남긴 글

언제인가 가이아나의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가이아나협동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이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이아나에서 총리가 취하고있는 로선들을 지지해주시면서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에서 기존공식이란 있을수 없다고, 모든 리론은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이아나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애로들과 세계정세에서 나서고있는 복잡한 문제들도 알기 쉽게 생동한 실례들을 들어가며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우리는 가이아나혁명을 적극 지지하며 도와주겠다고 하시면서 뜨락또르를 비롯한 여러가지 농기계들과 함께 유능한 기술자들도 보내주고 관개공사도 맡아해주겠다고 은정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귀국한 후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자기 나라 인민에게 철저히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풀어나갔다. 나라의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하여 국방력강화에 힘을 넣는 한편 사탕수수재배와 보크사이트생산 등 나라의 경제명맥을 틀어쥐고 내정간섭을 일삼던 서방독점체들을 단호히 추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가 조선을 방문한 후 가이아나에서는 모든 일이 잘되여나갔다. 이러한 성과들을 두고 당시 가이아나사람들은 총리를 가리켜 《조선에서 해빛을 안고온 우리 총리》라고 찬양하였다.

그럴 때마다 그는 가이아나에 해빛을 안겨주신분도 그리고 영원히 해빛을 주실분도 조선의 위대한 **김일성**동지이시라고 격찬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대한 고마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는 1983년 12월초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자기 나라에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자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기 위해 또다시 조선으로 달려왔다.

그를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정세를 과감히 뚫고나갈 방도를 함께 찾아보자고 하시며 지난 기간 조선인민이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대결전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가이아나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도와주기 위한 조치들도 취해주시였다.

조선을 두번째로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운 대통령(그는 1980년 10월 새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으로 됨)은 귀국하는 길에서 수행원들에게 《희망하였던것보다 더 큰것을 안고 간다.》라고 거듭 말하였다고 한다.

그는 귀국하자마자 제국주의의 그 어떤 압력에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것이라는 단호한 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모든 공민은 병사이고 모든 병사는 공민이다.》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전국적으로 민병조직을 확대하였으며 군사훈련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가이아나인민의 강인담대한 기상앞에 질겁한 제국주의자들은 하는수없이 저들의 강도적인 군사적압력을 철회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번함은 운명의 시각을 앞두고 이런 글을 남기였다.

《나의 사랑하는 인민들과 나의 귀중한 동지들, 나는 죽지 않는다. 나의 조국 가이아나가 인류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주체의 궤도를 따라 나아가는 한 나는 살아있을것이다. 주체의 궤도, 이 길은 오늘날 인류가 대행진해가는 길이다. 주체의 궤도, 이것을 어기면 차례질것은 죽음뿐이다. 궤도를 어기지 말라.》

이것은 외국의 한 국가수반이 자기 나라 인민에게 한 유언이기전에 주체의 광휘로운 빛발을 온넋으로 받아안은 진보적인류가 자기들의 심장마다에 깊이 새겨안은 혁명의 철리였다.

주체사상신봉자대렬에 들어서게 된 요인

언제인가 한 주체사상신봉자는 당신은 서유럽인이고 정부의 상까지 한 사람인데 어떻게 되여 주체사상을 신봉하는가라는 물음에 **김일성**주석을 한번 만나뵈우라고, 그러면 누구나 다 그이를 스승으로 모시지 않고서는 못배기게 될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짧으나 의미심장한 주체사상신봉자의 대답！

그 대답의 주인공이 바로 전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한스 클레카츠키이다. 그로 말하면 자본주의나라에서 정치활동에도 적지 않게 참가했으며 자본주의법학과 정치학을 오래동안 연구하여온 사람이였다. 그는 자기 한생의 거의 전부를 자본주의세계의 사회과학탐구에 바쳐온 제노라하는 리론가였다.

이러한 인생행로를 걸어온 그가 어떻게 되여 인생말년에 방향전환을 하여 주체사상신봉자들의 대렬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그처럼 열렬히 흠모하게 되였는가.

거기에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

한스 클레카츠키가 주체사상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한것은 1980년대초부터였다. 당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광범히 무어지고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보급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있었다. 이것은 오스트리아의 한 오랜 사회과학자의 마음속에 흥분과 격정의 소용돌이가 일게 하였다.

주체사상, 그것은 과연 어떤 사상이기에 대륙과 대양을 넘어 전세계에 파급되고있는것인가？

그는 이에 대한 대답을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을 탐독하는 과정에 찾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에는 그가 지금껏 그 어느 고전이나 현대의 《주의주장》들에서도 찾아보지 못한 참으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들이 담겨져있었다.

조선을 방문하는 과정에 그는 이르는 곳마다에서 사람중심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철저히 구현되고있는 현실을 목격하게 되였으며 이를 통해 주체사상이 순수 리론으로서가 아니라 산 현실로 그 위대한 견인력을 과시하고있음을 절감할수 있었다.

후날 조선방문의 소감에 대하여 그는 《조선에 대한 나의 첫 방문은 주체사상의 진리성을 확증한 초학도의 성공적인 〈수학려행〉이였다.》라고 말하였다.

조선방문을 마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한스 클레카츠키는 사람들속에 주체사상과 그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널리 소개선전하였다.

주체사상에 대한 신봉이 더욱 강렬해질수록 그의 가슴속에서는 크나큰 충동이 북받쳐올랐으니 그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는것이였다.

그의 소원은 마침내 이루어졌다.

주체74(1985)년 10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스 클레카츠키의 간절한 소망을 헤아리시고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그를 몸가까이 불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다정한 음성으로 먼길을 오느라고 수고가 많았다고 하시며 허물없이 담화를 나누시였다.

한때는 자본주의나라 정객이였고 지금은 한갖 대학교수에 불과한 자기를 마치 오래동안 헤여졌다가 만난 친근한 벗과도 같이 살뜰히 대해주시며 자기가 알고싶어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명철하게 가르쳐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에 한스 클레카츠키는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고 그이의 위대한 사상과 위인적풍모에 완전히 매혹된 한스 클레카츠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받드는 길에 여생을 다 바치리라 결심했다.

그후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을 내오고 주체사상을 광범히 보급하기 위한 한스 클레카츠키의 활동은 세계적범위에서 활발히 진행되였다. 그는 온갖 반동들의 방해책동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그에 구애됨이 없이 《위인을 따르

고 진리를 지키는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고 정의로운 일이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길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을것이다.》라고 하면서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에 자기의 심신을 깡그리 바치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매혹과 그이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나라의 한 사회과학자가 열렬한 주체사상신봉자대렬에 들어서게 된 요인이였다.

미국종교지도자가 숭상한 현세의 하느님

주체81(1992)년 봄 세계종교계의 거물이며 그리스도교계 보수파의 왕으로 알려진 미국종교지도자 빌리 그라함목사가 미국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조선을 방문하였다.

목사일행이 평양에 도착한 때로부터 이틀이 지난 4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그들을 친히 만나주시였다.

담화석상에서 목사는 탄생 80돐을 맞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다함없는 존경을 담아 축하의 인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시하시고 그에게 어서 앉으라고 자리를 권하시였다.

잠시후 목사는 자기가 이번에 미국대통령과 로마법왕이 위대한 수령님께 보내는 구두친서를 가져온데 대하여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목사에게 미국대통령이 친하자고 구두친서를 보내왔단 말이지라고 하시고는 친하자고 하면서 주인의 승인없이 남의 집 아래방을 차지하면 안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에게 귀국 대통령이 자신께 구두친서를 보낸데 대해 환영한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국이 우리에 대하여 좋게 나오면 조선과 미국이 친구로 사귈수 있다고, 앞으로 적당한 시기에 자신께서 귀국 대통령과 만나 조미사이의 관계개선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눌수도 있을것이라고 하시였다.

자애에 넘치면서도 용의주도하게 담화를 이끌어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인간상에 한없이 매혹된 목사는 격정에 넘친 어조로 그이께 자기는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보았는데 그가운데서도 주석각하를 제일로 존경한다고 하면서 각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큰뜻을 품으시고 온갖 난관을 헤치시며 조선을 이처럼 아름다운 나라로 건설하시였다고, 미국사람들은 주석각하를 따라배워야 한다고 정중히 말씀올리였다.

이것은 그의 진정에 넘친 고백이였다.

이날 수령님께서는 손님들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오찬에 앞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목사에게 식전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는가고 하시며 어서 기도를 드리라고 이르시였다.

뜻밖에도 식전기도까지 헤아려주시는 그이의 진정에 감격을 금치 못하며 목사는 주석각하께서 차리신 오찬회에 참가한것은 자기에게 있어서 커다란 특전으로, 영광으로 된다고 말씀올리였다.

이날 목사는 조선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듣고 종교에서 해결하고저 하던 모든것을 현실로 꽃피우신 그이에 대한 존경과 찬탄을 금치 못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 이번에 귀국에 와서 보니 미국사람들도 조선에서 배울것이 많다는것을 알게 되였다고 하면서 자기가 조선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있었다는것을 솔직히 말씀드리였다.

그이께서는 목사에게 우리 나라는 발전된 나라라고 하는 미국이나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처럼 돈이 있는 사람은 잘살고 없는 사람은 못사는것과 같은 빈부의 차이가 없는 나라이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들은바에 의하면 미국에는 집이 없어 길가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도 많고 밥을 빌어먹거나 돈을 구걸하는 거지 그리고 아편중독자와 실업자도 많다고 하는데 옳은가고 물으시였다.

목사는 그렇다고 말씀올리면서 그런 사회적불평등이 문제이며 고민거리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는 집이 없어 한지에서 자는 사람도, 돈을 구걸하는 거지도 없고 아편중독자와 실업자도 없다고, 우리 인민들은 누구나 다 자기 집을 가지고있으며 먹을 걱정, 일자리걱정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고있다고 하시면서 미국사람들은 미국식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식이 좋다고 강조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당신들은 하느님을 믿지만 우리는 사람을 믿는다고, 사람은 모든것의 주인이라고, 하느님도 사람을 위한것이니 현세에서 사람을 믿는것이 하느님을 믿는것보다 낫다고 하시며 그래서 우리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다고 긍지높이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한없이 인자하고 소탈한 풍모에 감동된 목사는 자기 안해에 대해서도 말씀올리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 안해가 해방전 평양에서 공부하였다는 사실과 아직도 조선을 잊지 못해한다는데 대하여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런가고 하시며 나는 당신의 부인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도록 초청한다고 깊은 정을 담아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숙소로 돌아온 목사는 좀처럼 진정하지 못하며 수행원들에게 자기는 생에 처음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인간으로서도 가장 위대하고 베푸신 덕망과 정치도 으뜸이신 위대한분이시라고, 성인중의 대성인을 만나뵈왔다고 자기의 진정을 토로하였다.

그는 자신께서는 하느님을 믿는것이 아니라 인민을 믿는다고 하시며 인민을 위한 독특한 정치를 펴나가시는 **김일성**주석각하는 어찌 보면 하느님이시라는 생각만이 들뿐이라고, 하느님은 천상세계에 있으면서 과거와 래세에 강림하는 상상속의 구세주라면 **김일성**주석은 오늘의 인간세상에 실재해계시는 하느님이심을 자기는 자인한다고 말하였다.

목사가 위대한 수령님을 얼마나 숭배하였는가 하는것은 그가 귀국하여 목사님은 왜 조선에 성경책을 전하지 못했는가라고 묻는 기자에게 《나는 조선에 가서 전도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았다. 성서는 모두 인간을 사랑

하라는 하느님의 뜻을 담고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인간사랑이 국책으로 실시되고있다. 무상치료, 무료교육, 의식주에 대한 국가적책임, 이것이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시는 **김일성**주석이 내놓으시고 실천하시는 국책이다. 조선인민은 그분을 하느님처럼 받들고있었다. **김일성**주석은 현세의 하느님이시다. 이러한 나라에 성경책이 과연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고 말하였다.

수십년만에 푼 숙제

뽀르뚜갈 전 대통령 고메스가 지난 조선전쟁시기 마카오주둔 뽀르뚜갈군 참모장으로 있을 때였다. 그 나날 그는 서방세계에서 《무적의 군대》로 공인되여있는 미군이 청소한 조선인민군에게 여지없이 격파당하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조선에 대하여 커다란 호기심을 가지게 되였다.

특히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존경심을 간직하게 되였다.

1980년대초 조선을 방문한 그는 마음속으로 존경하여마지 않던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게 되였다.

이 력사적인 상봉을 계기로 위대한 수령님과 우정을 맺은 그는 그이를 진심으로 경모하여왔다.

여러차례에 걸치는 조선방문을 통하여 고메스는 세계정치정세에 그토록 민감하시고 자주적인 정치로 나라와 민족의 번영발전을 이룩해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와 고매한 인품에 더욱 매혹되였다.

후날 그는 자기는 마카오시절에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던 그것, 청소한 공화국의 군대가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을 후려친 비결을 오늘에야 푼것 같다고,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고 위대한 사상을 가진 나라는 언제나 강한 법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그의 심중에서 우러나온 진정어린 목소리였다.

눈물을 흘렸다는것을 숨기지 않는다

주체79(1990)년 9월 어느날 조선을 방문하고 일본에 도착한 가네마루 싱은 기자들을 둘러보면서 조선방문은 훌륭한 방문이였다고, 다만 아쉬운것은 너무도 뒤늦게 이번 걸음을 한것이라고, 자기는 **김일성**주석각하를 만나뵙고 그분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는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진심으로 존경하는 위인에게 매혹된것은 결코 수치가 아니기때문이라고, 자기는 비록 생의 말년을 살고있는 정치가이지만 **김일성**주석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이것은 정치가로서 자기의 마지막사명이라고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독하게 적대시하던 가네마루 싱은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후 《김 가네마루》로 불리울 정도로 인생의 방향전환을 하였으며 수령님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힘껏 노력하였다.

탄복한 카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83(1994)년 6월 중순 미국대통령 클린톤의 특사로 조선을 방문한 전 미국대통령 지미 카터를 만나주시였다.

방문기간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인품과 도량,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 통찰력, 만사에 능통한 깊은 조예와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해박한 지식, 뜨거운 인정미에 완전히 반해버린 카터는 수령님께 작별인사를 올리기에 앞서 한가지 청을 올리였다.

그것은 조선을 방문했던 기념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전기를 수록한 도서들을 가지고가게 해달라는것과 수령님의 초상휘장을 모시게 해달라는것이였다.

후에 카터는 기자들앞에서 존경하는 **김일성**주석은 미국의 건국과 운명을 대표하였던 3대대통령들인 죠지 워싱톤, 토마스 제퍼슨, 에이브라함 링컨을 다 합친것보다 더 위대한분이시라고, **김일성**주석은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의 건국자들과 태양신들을 다 합친것보다도 더 위대한 인간운명의 태양신이시라는것을 자기는 서슴없이 말하게 되는바이라고 말하였다.

조선에 뿌리내린 김일성화

주체53(1964)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54(1965)년 4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시였다.

대통령은 자기 나라를 방문하신 위대한 수령님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그리고 두 나라 인민의 영원한 친선의 표시로 최고훈장인 인도네시아공화국훈장 제1급을 수여해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대통령의 한없는 흠모심은 이 나라 식물학자가 새로 육종한 희귀한 꽃을 **김일성**화로 명명한데서 더욱 분출되였다.

새로운 종류의 꽃을 육종해냈다는 어느 한 식물원 원장의 보고를 받고 그곳에 나간 대통령은 아직 꽃에 이름을 달지 못했다는 그의 말을 듣고 이 꽃은 지금까지 자기가 본 꽃들가운데서 제일 아름답고 진귀한 꽃이라고, 자기는 이 꽃에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김일성**각하의 존함을 모시려고 한다고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대통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식물원을 돌아보실 때 자기가 결심한 바를 정중히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굳이 사양하시자 그는 존경하는 각하께서는 인류를 위하여 참으로 많은 업적을 이룩하시였으니 응당 높은 영광을 지니셔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올렸다. 식물원 원장도 대통령의 제의를 수락해주실것을 간청올렸다.

그로부터 10년세월이 흘러 **김일성**화는 조선에 뿌리내리게 되였다.

세계적위인의 취미

주체81 (1992) 년 4월 1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을 방문하고있는 미국 《워싱톤 타임스》 기자단을 만나주시였다.

대표단성원은 위대한 수령님께 많은 사람들이 주석께서 80대에 50대의 건강을 지니셨다고 하는데 그 비결과 즐기시는 취미는 무엇인가고 질문하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에게는 내놓고말할만 한 특별한 취미나 오락은 따로 없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래도 그 어떤 취미가 있을수 있지 않는가고 다시금 질문하는 그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웃으시며 굳이 취미라고 한다면 둬가지로 말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책보기를 좋아하고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지내는 것이 자신의 취미라고 말할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는 지금까지 많은 국가수반들과 제노라하는 정객들로부터 사냥이나 낚시질, 수영이나 유흥이 자기의 취미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았지만 책읽기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것을 취미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주석각하의 취미는 너무도 소박하고 지어 그것을 취미라고 할수 있겠는지 의문스러운것이지만 담겨진 뜻은 우주와도 같다고, 참으로 주석각하의 취미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질수 없는 명실공히 세계적위인의 취미라고 자기의 속생각을 그대로 위대한 수령님께 말씀올렸다.

오늘의 아시아에는 새로운 파도가 일고있다

1971년말 당시 일조문화교류협회 리사장이며 전 《요미우리신붕》 론설위원이 조선을 방문하였다.

이해 12월 31일 저녁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아이들의 공연을 보신 다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를 부르시여 공연을 지도한 교원들에게 자신의 친우라고 소개하시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 다음번에 공화국을 방문하면 주석께서 1930년대에 활약하신 혁명전적지들을 찾아가 전기를 쓰려고 한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두손을 흔드시며 그럴 필요는 없다고, 쓰겠으면 인민에 대하여 써달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는 조선을 방문하는 기회에 어디에 가도 위대한 수령님의 발자취가 닿지 않은 곳이 없으며 그이에 대한 조선인민의 믿음과 존경이 불길처럼 타번지지 않는데가 없다는것을 목격하게 되였다.

그는 자기의 글에서 오늘의 아시아에는 새로운 파도가 일고있다고, 오늘의 기본조류는 주체이며 현시대는 주체의 길로 나아가고있다고, 여기에 아시아의 빛이 있다고 썼다.

맺 는 말

오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러러 따르는 인류의 마음에는 끝이 없다.

세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단위들과 그이를 흠모하여 올린 진귀한 선물, 훈장, 명예칭호들은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으며 지금 세계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는 조직들이 조선을 중심으로 피줄처럼 뻗어있고 그 대렬은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실로 인류자주위업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인상과 그이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뜨거운 마음과 찬탄의 목소리를 다 담자면 아마 일생을 두고도 다 담지 못할것이다.

저 하늘의 태양이 영원하듯이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고계신다.

오늘 세계정치무대에는 **김일성**시대, **김정일**시대에 이어 **김정은**시대가 장엄히 펼쳐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령도의 나날에 세계는 인류가 일찌기 알지 못하였던 위대한 태양의 실록을 보았으며 그것은 그대로 절세위인에 대한 매혹과 흠모를 낳았다. 그이의 혁명활동의 자욱자욱이 지면과 전파에 실려 5대륙 방방곡곡에로 전해지고있다.

국제사회의 관심과 이목이 출중한 위인적풍모와 뛰여난 령도력, 한없이 고매한 덕망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로 집중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르는 길이 인류자주화위업의 승리를 담보하는 길이기에 세계 진보적인류는 태양의 위업을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그이께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의탁하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온 행성에 세차게 굽이치는 **김정은**열풍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사회주의의 기치로, 인류운명의 수호자로 모시고 따르는 만민의 다함없는 경모와 신뢰심의 열화같은 분출이다.

억척불변의 신념과 열화같은 사랑, 불굴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21세기의 태양 **김정은**동지를 모시여 진보적인류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